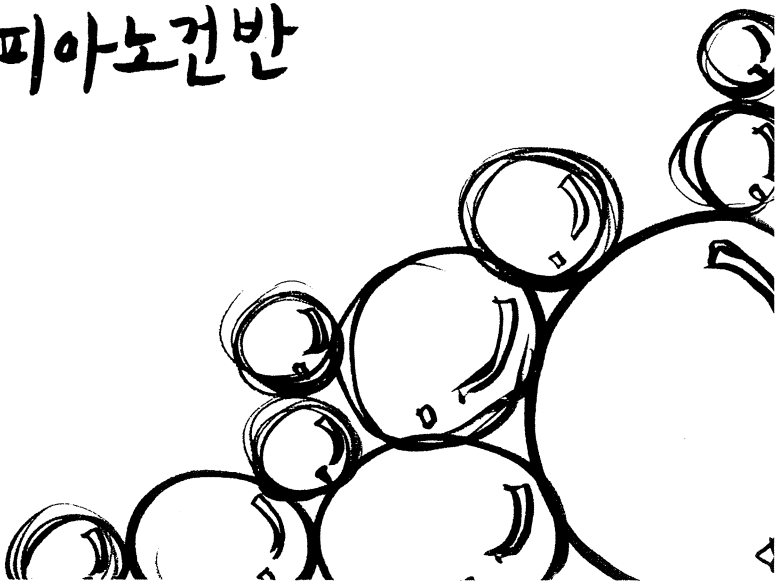


# HALO HALO

필리핀 평화여행  
2008년 4학년 피아노건반





- 순서 -

1. 역는 글 - 필리핀은 왜 갈까요	1
2. 2008년 4학년 필리핀 해외이동 체험학습 개요	3
3. 필리핀 일정	6
4. 현지 협력 단체 소개	8
5. 필리핀 소개	
가. 필리핀의 지리	13
나. 필리핀의 문화	15
다. 필리핀의 날씨	17
라. 필리핀의 경제	18
마. 필리핀의 음식	19
바. 필리핀의 물가와 교통	25
6. 간단한 회화	
가. 따갈로그어	28
나. 영어	32
7. 출국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	35
8. 비상시 대처방법	38
9. 필리핀평화여행 TIP.	46
10. 함께 부르는 노래	51
11. 함께 가는 사람들	54



## 1. 역은 글

### 필리핀은 왜 갈까요?

#### 아시아인으로, 지구인으로 함께 살아가기 프로젝트

양희창

이제 간디학교에서 매년 필리핀으로 체험학습을 가는 활동이 삼 년째로 접어들습니다. 지구촌 세상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일이 일상화되었다고 하지만 필리핀으로 가는 이유가 어학습득에 있다면 굳이 필리핀을 택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왜 필리핀인가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시아인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연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한 몸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과학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세계는 점점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은 국경의 의미가 무색해지는 '하나의 유럽'을 만들어 가고 있고 서서히 아시아도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로서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국가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조그만 일도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고 서로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민족만 잘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것은 결국 공멸할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태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북경에서 황사가 불면 서울의 시민들이 고통 받듯이 이제는 한 몸 사회를 살아가는 아시아인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시아의 시민들이 함께 평화롭고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나누는 아시아의 평화와 연대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한 민족의 편협한 이기주의로는 결코 지탱할 수 없는 범아시아의 세상이 되어야 함을 깨달고 아시아인으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 위치하여 여러 주변국가와 관계 지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 통하는 영어를 사용하는 이점이 있어서 영어를 사용하는 다른 문화권과 민족 간의 소통을 자유롭게 해 줍니다. 한국에도 다문화가정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특히 많은 필리핀 여성들이 우리나라로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여 보면서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감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배움의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를 학력사회라고 합니다.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고 믿는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사회이지요. 배움의 목적이 진리를 추구하고 행복을 찾아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출세하고 돈 버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나라이지만 그들이 지니고 있는 문화의 깊이나 사람들의 여유를 통해 우리들의 삶을 반성하고 성찰하게 합니다. 간디는 진정한 문명이란 욕망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욕망을 조절하고 줄여나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소박한 삶 속에서도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난한 가운데서도 활짝 웃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정녕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불안해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어공부는 불안감 속에서 오직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한 목적으로 임할 때 결코 향상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웃과 만나기 위해서, 관계를 잘 맺기 위한 소통의 욕구가 발생할 때 자연스럽게 습득됩니다.

영어 하나에 목숨을 걸고 어릴 때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오직 성공을 위해서 억지로 하는 공부보다는 자유롭게 살기 위하여, 이웃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배움의 목표를 설정하고 삶의 지식이 훨씬 풍성하게 하는 진정한 배움의 길을 찾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대안적 삶을 찾기 위한 모색이라는 겁니다.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대안적 삶을 모색할 수 있는 단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굳어있던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하노라면 나도 타인의 상처를 치유하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드림을 두드리며 마냥 행복해하는 사람들에게서 진정한 예술의 세계를 엿볼 수 있고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이들을 만나, 소박하게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평화의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꿈꿀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식으로만 살아가라고 강요하는 세상에서 다른 삶이 존재할 수 있음을 느껴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 자유인으로 멋있게 살아가며 타인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간디에서 아시아 평화학교를 아시아 여러 나라에 세우려고 합니다. 세계의 평화 운동가들과 협력하여 폭넓은 교제를 통하여 함께 배움의 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곧 교사가 되고 평화운동가가 되어 봉사하며 삶을 나눌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경쟁 사회를 극복하고 대안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길을 만들고 상생의 길로 들어서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제대로 알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조직하고 기획할 수 있는 능력과 타자를 배려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리핀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실험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세계의 NGO조직들이 집중되어 있고, 봉사 현장이나 예술, 문화 현장들이 널려있는 필리핀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 찾기' 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2008년 4학년 필리핀 체험학습 개요

**2008년 4학년 필리핀 체험 학습 개요**

◎ 프로그램 개요

1. 프로그램 명 : 2008 필리핀 문화 교류
2. 프로그램 주관 : 제천 간디 학교
3. 참가자 : 간디학교 4학년(15명), 윤하샘, 필샘, 이매진 피스팀(Imagine Peace)
4. 장소 : 두마게티, 보홀, 세부, 민다나오, 민다나오
5. 기간 : 2008년 9월 19일 ~ 11월 15일
6. 프로그램 파트너 : 갈전 간디 마을 학교 두마게티 분교  
이매진 피스(Imagine Peace;한국 평화 운동 단체)  
Enigmata Creative Circle (Program Coordinator)

◎ 프로그램 목적

-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넓힌다.
- 다른 문화와의 만남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고 대안적 삶의 방향을 찾는다.
- 같은 아시아 인으로서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이해한다.

◎ 프로그램 목표

-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키운다.
- 살아있는 현장 학습을 경험하고, 지속적인 만남을 위한 프로젝트를 만든다.
-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영어 학습을 통하여 국제 의사소통의 자신감을 얻는다.
- 아시아의 청소년과의 동등한 위치에서의 관계를 형성한다.
- 민다나오에서 문화 예술인들과의 워크샵을 통해 평화의 즐거움을 경험한다.

◎ 프로그램 소개와 일정

**1. 지역사회를 체험 하는 비사야(Visayas) 제도 여행**

- 프로그램 소개 : 보홀과 세부 등 단순한 관광이 아닌 지역주민들과의 교류, 새로운 문화와의 만남, 관광지외의 현실 등을 이해하고자 한다. 보홀의 농악학교, 유기농 현장, 인간에 의해 조련되지 않은 야생 동물, 지역사회 운동 현장을 찾아보며 빈부의 문제, 관광산업에 밀려난 원주민들의 삶, 새로운 대안 운동을 알아 나가하고자 한다. 카미권(Camiguin)에 도착하면 이 여정이 마무리를 짓고 민다나오에서의 평화 활동을 시작한다.
- 프로그램 진행 : Enigmata
- 장소 : Bohol, Cebu
- 기간 : 9.22(월) ~ 9. 28(일)

- 프로그램 일정 :
  - 9. 22 두마게티 --> 탁빌라란 이동. 숙박 확인 (Firefly optional)
  - 9. 23 Bohol 농악학교
  - 9. 24 Choco hills, Loboc River cruise, Tashier watching, Loboc Children's choir, Baclayon church (Firefly optional)
  - 9. 25 Dolphin watching, Balicasag or Pamilacan Island, Panglao Beaches, Dauis Church
  - 9. 26 Sierra Bullones farmers community home stay
  - 9. 27 Back to Dao Diamond. Free time. Sunset concert with Loboc Youth Ambassadors (optional community musicians)
  - 9. 28 탁빌라란 --> 두마게티 이동 및 휴식

## 2. 두마게티 프로그램

- 프로그램 소개 : 영어로 대화하기가 흔하지 않은 한국 학생들에게 의사 소통 기술로서의 영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것은 자신감뿐만 아니라 외국 문화에 접근하는 벽을 낮추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면 민다나오에서 진행될 평화 프로그램을 체화하는데 더 용이할 것이다. 두마게티에 있는 필리핀 현지 선생님들과 함께 영어 학습을 하며 동시에 현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프로그램, 필리핀 문화 배우기 등 다양한 문화 교류 활동을 한다.

- 프로그램 진행 : 갈전 간디 마을학교 필리핀 분교
- 장소 : 두마게티
- 기간 : 9. 29(월) ~ 10. 25(토)
- 프로그램 일정 : 세부 일정 참조

## 3. 민다나오 프로그램(내면의 언어 찾기)

- 민다나오의 많은 지역사회들은 분쟁에 노출되어온 지역이다. 이곳에서의 평화 학습과 관련 활동은 그래서 더욱 의미가 깊다. 단계적인 평화 활동들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기를 바란다. 먼저 민다나오 북부의 작은 섬 파미권에서 때묻지 않은 자연과 지역 문화가 어우러지는 치유와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갖는다. 이어서 고유문화와 전통을 보존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평화로운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 소수 민족 마을을 방문한다. 그들의 평화로운 삶의 방식과 공유의 삶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느끼고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 가. Enigmata 평화 캠프(내면의 언어 찾기 워크숍)

- 프로그램 소개 : 민다나오 북부의 작은 섬 파미권의 트리 하우스에서 관광객에 찌들지 않은 아름다운 섬 문화를 즐기고 트리 하우스의 생태적 환경에서 예술 워크숍, 지역 학생들과의 교류, 치유와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갖고 민다나오에 들어가기 전 휴식을 취한다.
- 프로그램 진행 : Enigmata Creative Circle
- 장소 : Enigmata treehouse
- 기간 : 10. 25(토) ~ 11.4(화)



- 프로그램 일정 :
  - 10. 25 두마게티-->파미권 이동, 숙박 확인
  - 10. 26 휴식
  - 10. 27 ~ 11. 4 트리하우스 근거리 파미권 지역 문화 체험, 예술 워크숍

나. Waway씨 부족 체험

- 프로그램 소개 : 파미권에서 만난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민다나오의 파가얀 데 오로를 거쳐 Waway 부족까지 가는 자유여행을 한다. Waway씨가 있는 Talaandig 마을에서는 소수 민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렵고 가난하지만 아름답게 살아가는 공동체 체험을 하며, 자유로운 예술 체험을 한다. 그들의 삶에서 평화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의 미래를 계획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 프로그램 진행 : Rosalie Zerrudo, Waway
- 장소 : Talaandig 마을
- 기간 : 11.5(수) ~ 11.11(화)
- 프로그램 일정
  - 11.5 ~ 11.7 파가얀 데 오로(CDO)에서의 White water 레프팅 후 Bukidnon 거쳐 Talaandig 까지 모듬별 자유여행
  - 11. 8 ~ 11 Talaandig 부족 공동체 체험, 악기 워크숍

다. Kublai씨와 함께 하는 민다나오 예술 체험

- 프로그램 소개 : 민다나오 예술가 쿠블라이와 함께 자유로운 예술 체험 활동을 하면서 예술을 통한 영혼의 자유를 가져본다.
- 프로그램 진행 : 쿠블라이(Kublai)
- 장소 : Ponse Suite (Kublai 호텔)
- 기간 : 11.11(화) ~ 11.13(목)

라. 마무리

- 평가 및 휴식 : 11.14(금)
- 귀국 : 11.15(토)

3. 필리핀 일정

9 Septem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어권생일
7	8	9	10	11	12 필 출국	13
14	15	16	17	18	19 출국 59일 비자 1 일차	20
21	22 비 두마게티--> 탁빌라란 (보홀) 숙소: Dao Diamind (Fire fly optional)	23 사 Bohol deaf school	24 야 Choco hills Loboc river Tarshier Loboc children's choir Baclayon church	25 투 Dolphine watching Balicasag or Pamilacan Island Panglao Beaches Dauis church	26 어 Sierra Bullones communit y homestay	27 Back to Dao Diamond Free time Sunset concert with Loboc Youth Ambassadors
28 탁빌라란--> 두마게티 휴식	29 두마게티 1주차 Lisa community project	30 Philippine Culture Class				

10 Octo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Banda Manga	2 ASIANO Group	3 Saceda Swimming	4 Apo Island tour
5 휴식	6 두마게티 2주차 Lisa Community Project	7 Philippine Culture Class	8 Banda Manga	9 Saceda	10	11 Valencia forest camp tour/swimming Valencia Fiesta
12 Valencia Fiesta	13 두마게티 3주차 Lisa Community Project	14 Philippine Culture Class	15	16	17 Dumague te--> Bacolod	18 Sugarcane/Ci ty tour Masskara Festival
19 Mambuc al Resort	20 두마게티 4주차 Bacolod--> Dumaguete	21 Philippine Culture Class Handicraft	22 Banda Manga	23 Saceda	24 Swimming	25 두마게티 종료 Dumaguete--> Camiguin
26 휴식	27 Enigmata	28	29	30	31	

11 Novem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휴식	3	4	5 카가안 데오로 (CDO) 자유여행	6 자유 여행	7 자유 여행  - - > Talaand ig	8
9	10	11 Talaand ig - - > Davao	12 Kublai's a r t worksho p	13	14	15 귀국 59일비자 58일 차
16	17	18	19	20	21	22
23/30 입교	24	25	26	27	28	29

12 Decembe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1. 30	1	2 기	3 말	4 축	5 제	6
7 겨울방학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공정무역	20 -----> 축제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4. 함께 하는 사람들

##### 함께 하는 사람들

###### ① Enigmata Creative Circle

Enigmata Creative Circle(이하 에니그마타)는 민다나오 카뮈퀸(Camuiguin)섬의 음악가, 미술가, 행위 예술가, 작가 등 다양한 예술가 들이 모여 만든 예술 집단이다. 지속가능한 생태적 삶을 위해 다양한 인간의 품성을 하나로 엮고자 다양한 형태의 예술로 인간 내면의 눈을 뜨게 해주고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며 결국은 다양한 문화와 종을 자연 속에서 하나로 이어주고자하는 것이 에니그마타의 비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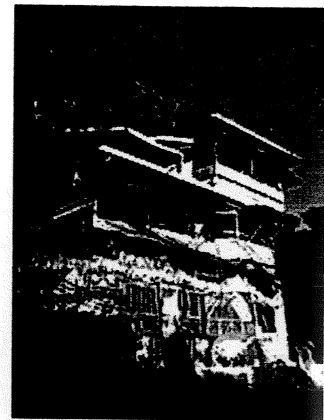
Waway, Ross, Kublai, Andrew Tatting, Dodo 등 출신 부족이나 종교적 배경이 서로 다르지만 예술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모여 에니그마타를 결성하고 자연과 예술을 통해 사람들이 아름다움에 눈을 뜨고 자연과 삶에 감사할 수 있도록 예술, 문화 교류, 생태 활동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룹의 리더인 Waway씨 마을의 경우 그들의 메인 슬로건이 "인간의 종다양성"이다. 생태계에 종 다양성이 필요하듯 인간에게도 종다양성이 필요하며, 사라질 위기에 놓인 소수 부족들이 자신들의 존엄과 존재를 지키기 위해 국제적 연대를 시작하고 있고, 그 운동의 네트워크에 Waway의 마을도 참여하고 있다.

이번 체험 학습의 전반적인 프로그램과 방문지 섭외는 이 단체의 협력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다. 특히 프로그램 기획단계에서부터 우리들의 필리핀 프로그램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행위 예술가 로스(Rosalie "Ross" Zerrudo)가 Treehouse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기도 하다. 천해의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들어선 Treehouse는 이들 활동의 근거지이다. 이들 예술가 집단은 이번 체험 학습의 대미인 민다나오 프로그램에서 우리의 예술적 감성을 끌어내어 주고 예술 활동을 통한 '창조적 평화'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 Enigmata Treehouse

에니그마타는 Hostelworld.com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 경적인 호스텔의 하나로 선정되기도 한 이들 단체의 활동 근거지이다. Tarzan's Nest Resort(타잔 둥지 리조트)라고도 알려진 이곳은 민다나오 카뮈퀸 섬의 백백한 밀림 사이에 음악가인 Ben Aicha가 지은 것으로 Enigmata Creative Circle 이라 불리는 민다나오 섬 예술가 그룹의 활동 거점이 되었다. Treehouse는 Talaandig 부족장이자 음악가, 미술가인 Waway Linsahay Saway(이하 와와이)가 이끌고 있으며 현재는 이번 우리 체험학습에 큰 도움을 준 Rosalie "Ross" Zerrudo(이하 로스)가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Treehouse

##### 주요 멤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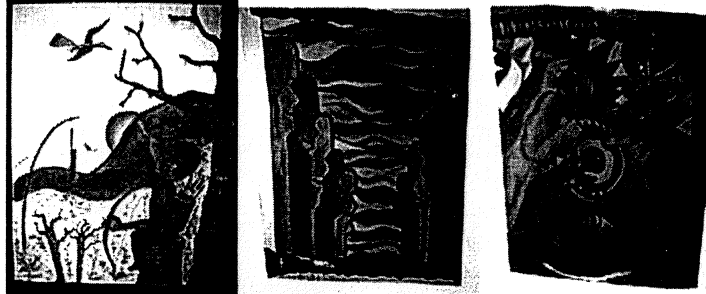
###### Rodelio "Waway" L. Saway

일명 Waway Saway 또는 Waway라고도 불린다. Talaandig 부족장이기도 하면서 음악가, 미술가로서 에니그마타의 리더이다. 에니그마타의 음악을 지휘하고 있으며 캔버스에 흙으로 그린 그림이 인상적이다.



Waway

- Waway씨의 다양한 작품들



### Rey Mudjahid "Kublai" P. Mil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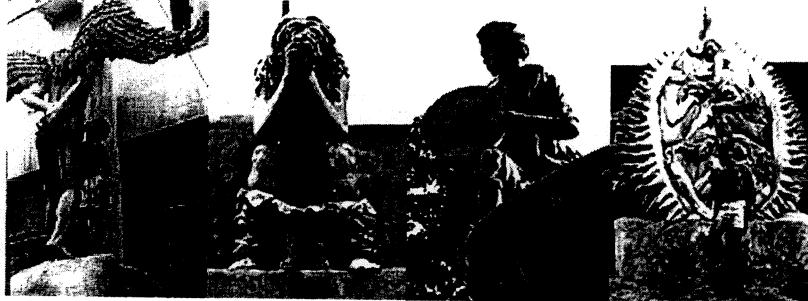
Kublai라고도 불린다. 조각가이자 미술가로서 에니그마타의 예술 감독이다. 멀티 미디어 예술도 하고 있으며 사진작가, 시인이기도 하다. Cotabato City에서 태어나 필리핀 대학을 졸업 후 민다나오로 내려와 작업하고 있다. 에니그마타의 다양한 엽서 작품은 Kublai의 만들었다. 그는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조각들을 만든다. 그의 작품은 공항, 도시공원, 공공 놀이터, 산 유원지, 공공빌딩 앞에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Ponce Suites에 많이 설치되어



Kublai

있다. 그는 민다나오의 어떤 도시에서건 작품을 만들고, 자신의 작품으로 인해 민다나오에 많은 예술가들이 자극받고 자신의 사랑과 일을 더욱 열정적으로 추구하기를 바란다.

- Kublai씨의 다양한 작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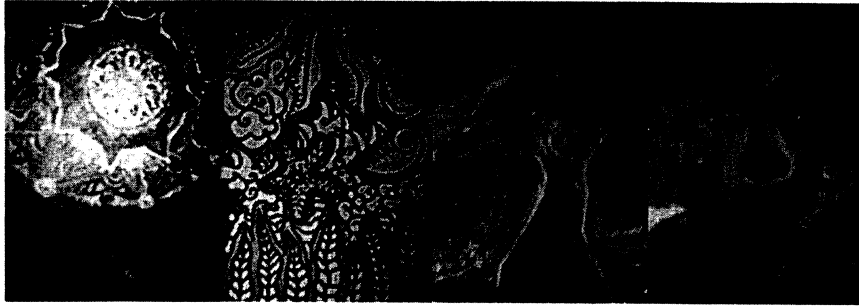
**Ma. Rosalie "Ross" A. Zerrudo**



Ross

Ross라고도 불리우는 행위 예술가이다. 사라지지 않는 창작의 에너지로 시와 미술, 행위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

- Ross의 다양한 작품들



## 함께 하는 사람들

### ② 이매진피스 IMAGINE PEACE

이매진피스는 평화여행, 평화행동, 평화교육, 평화놀이터를 열어가며 사람, 관계 속에서 평화의 그물망을 만드는 네트워크입니다.

2006년부터 어린이, 청소년 평화교육과 분쟁지역에 평화도서관 만들기, 평화를 배우는 여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 평화여행

가려진 것들을 찾아가 귀 기울이며 진실과 마주하는 여행,  
분쟁의 안개 속에서 평화의 꽃을 심는 사람들을 만나는 여행,  
대안을 찾는 여행, 꿈을 만드는 여행을 떠납니다.

평화는 여행자의 발걸음 위에 깃들여 길이 될 것입니다.

2006년 5월 필리핀 민다나오 MPI Training

11월 민다나오 평화여행

2007년 2월 "아체 평화도서관을 찾아서" : 인도네시아 아체 루모우파캇

4월 "국경을 넘는 희망" : 중국-티벳-네팔

6월 피스보트를 만나는 도쿄 평화여행

7월 "국경을 넘는 여행, 경계를 넘는 배움" - 간디학교와 함께 : 티벳-네팔

9월 '곶자왓 작은학교', '천리길 친구들' 과 함께 하는 제주 평화여행

11월 민다나오 평화여행 "당신은 평화를 믿나요?"

12월 공정여행축제 "여행, 좋아하세요?"

#### 평화행동

전쟁과 폭력에 민감하려 합니다. 침묵하지 않고 행동하려 합니다.

거대한 폭력과 거대한 무기 앞에 작은 몸짓으로 맞서려 합니다.

평화가 전쟁보다 힘이 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2006년 6월 간디학교 친구들, 명동 평화행동 "평화를 택하라" - 평택

2007년 2월, 3월 고 윤장호 추모 피스몹 "죽음의 저글링, 파병을 멈춰라"

3월, 3.20 - 돈보다 생명, 파병반대 평화행동

8월, 아프간에 평화를 평화행동 / 부산 평화행동 - 아프간, 소말리아 피랍선원

9월 21일, 한잘라를 만나다 - 관타나모 가는 길

10월, 탈학교 네트워크

10월 6일, 신촌거리축제, 버마 평화행동

\*피스몹 : 누군가, 어떤 평화문제에 대해 함께 평화행동을 할 것을 제안하면,  
24시간 안에 시간과 장소, 행동의 주제와 표현을 정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  
개인들의 평화적 행동을 집단적으로 드러내는 문화적 평화행동입니다.

평화교육

아이들의 일상적인 말 속에도, 친구와의 관계 안에도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분쟁의 고통 속에 있는 지구의 이웃과

우리가 서있는 분단의 현실을 가르치는 평화교육의 장을 한발 한발 놓아줍니다.

아이들에게 오늘, 평화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평화로운 미래는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6-2007년 제천 간디학교 평화수업 및 평화여행

2006년 8월 한-일 평화교육 국제심포지엄 : 제주

10월 성미산학교 평화수업

11월, 민다나오 평화여행

2007년 3월, 고양자유학교 평화수업 (이후 아체 여행프로젝트로 연계)

5월, 6월 제천 간디학교 평화여행 수업(4학년, 5학년)

6월 당산초등학교 평화수업 (배성호)

7월, 8월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1,2차

8월, 제주 국제평화캠프

9월,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글로벌학교, GSU, 국제행동 네트워크 USAN

10월, 탈학교 네트워크 학교 너머와 함께 - 평화캠프

평화놀이

우리가 꿈꾸는 평화는 신나고 즐거운 일상입니다.

하루하루 삶을 꾸려가는 '나' 의 평화를 가꾸는 마당,

평화를 경험하고 느끼는 놀이터가 열립니다.

이기고 지는 경쟁 없이 모두가 즐거운 놀이터가 펼쳐집니다.

2006년 9월 홍대앞 걷고 싶은 거리 평화 놀이터

10월 대학로 생명평화 한마당 평화 놀이터, 콘서트

2007년 5월 평화 콘서트 "재즈, 평화를 만나다"

'남이섬 세계 책나라 축제' 평화 놀이터, 콘서트

6월 6월 항쟁 20주년 기념행사 평화 놀이터

대성리 평화콘서트, 남이섬 평화 놀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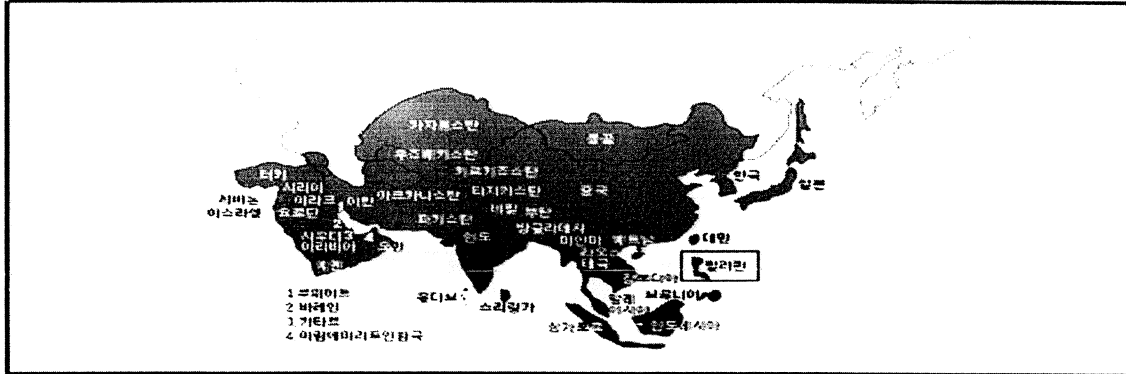


## 5. 필리핀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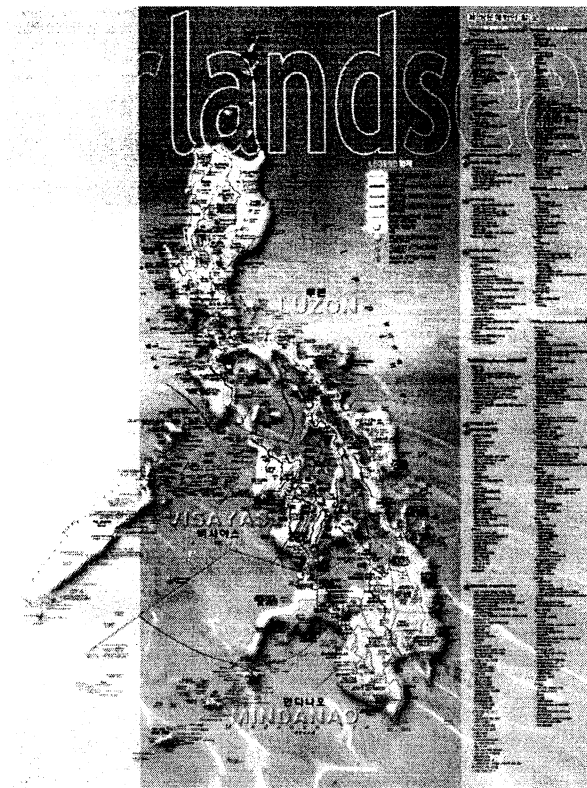
### ① 필리핀 지리

#### 방망이들(동혼 예지)

세계속의 필리핀



전체 면적은 299,000km<sup>2</sup>로 북쪽으로 대만, 남서쪽에는 말레이시아, 남쪽에는 인도네시아가 근접해 있다. 필리핀 군도는 남북길이가 1,km에 이르는 7,107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다.



필리핀은 Luzon, Bisaya, Mindanao의 세 지역으로 나뉜다. 북쪽지역은 가장 큰 섬인 Luzon으로 구성되어 있다. Bisaya 지역은 피나이, 레이트, 사마르, 세부, 보홀을 포함하는 약 6천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Mindanao는 두번째로 큰 섬이며, 약 4백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면적은 30만 평방 km이고 섬은 Luzon, Mindanao, 시말, 네그로스, 피나이, 레이트, 세부, 보홀, 마스바테, 민도르, 팔라완 등 열한개 섬인데, 그것만으로 총 면적의 96%나 차지한다. 전체 섬 가운데 이름이 붙어있는 섬은 2,773개이고 그 밖의 섬은 거의 작은 산호초이다.

수도 - 메트로 마닐라

인구 - 약 7,190만명

기후 - 고온다습한 아열대성기후, 년평균 27도

면적 - 300,440km<sup>2</sup>(7,7107개 도서로 구성)(반한도의 1.3배)

주요도시 : Cebu, Baguio, Davao, Cavite

주요민족 - 말레이족이 대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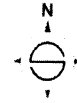
주요언어 - Tagalog(표준어)와 영어(공용어)

종교 - 천주교 85%, 회교 5%, 기타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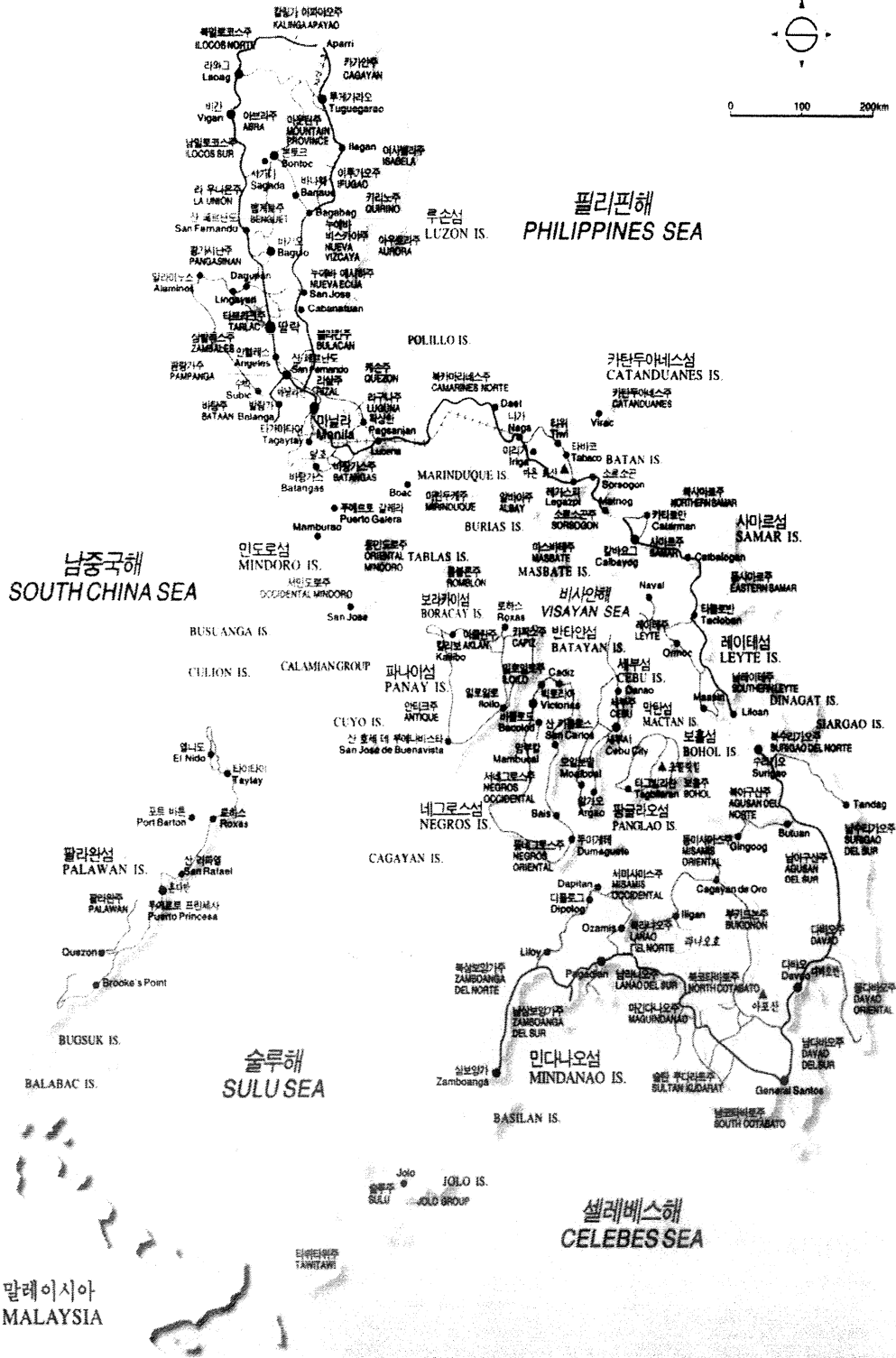
BATANES IS. ● Baño  
 바타네스주  
 BATANES PROVINCE

**MMBS**  
 MAN TO MAN BOARDING SCHOOL

BABUYAN IS.



0 100 200km



## ② 필리핀의 문화

최용헌

### 문화의 사전적 의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져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위의 사전적 의미대로 문화는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적, 정신적 가치를 의미한다. 하지만 그만큼 범위가 넓어 걸잡기식으로 이것저것 건드리기만 했다.

### 1.종교문화

필리핀의 종교는 가톨릭83%, 개신교9%, 이슬람교5%, 불교3%로 가톨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요일은 시내에 차가 한대도 지나다니지 않을 정도로 신앙심이 깊다고 한다.

민다나오 지역에는 이슬람들이 몰려 사는데 이는 에스파냐 식민지 시절, 가톨릭 신자에 대한 이주정책으로 이슬람교도들이 살 곳이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긴 식민지 생활로 과거의 토착종교와 신앙은 다 없어지고 그 빈자리를 메우는 게(아니 빼앗은 게) 가톨릭 이라고 할 수 있다.

### 2.음악문화

(이 글은 어느 블로거의 글을 인용, 요약한 것으로 주관적인 해석이다.)

필리핀 사람들 대다수의 취향은 팝문화에 치중되어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스페인에 의한 식민지생활로 굳어진 신앙 문화에 벽을 느낀 미국의 전략으로, 가톨릭으로 굳어진 정신세계의 지배보다는 대중문화에 미국적 정서를 주입시키는 게 낫다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 생각은 맞아떨어져 아직도 필리핀 사람들의 애창곡은 70~80년대의 팝음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왜 아직도 70~80년도 음악이냐면 그 시절 음악의 다양성과 예술성이 아직도 필리핀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 3.언어문화

필리핀의 국어는 따갈로그어로 영어와 함께 공용어로 사용된다. 따갈로그어는 원래 중부 루손에 굳어져 온 따갈족의 언어라고 한다. 따갈로그어와 영어 이외에도 모국어로 사용되는 언어는 합계 172개에 이른다. (무진장 많은데다가 하나같이 특색이 있어 의사소통이 불가하다.)

그 외에도 사용되는 언어에는 중국어(베이징어나 푸젠어), 에스파냐 식민지 시절의 에스파

냐어와 크레올어, 이슬람교도 사이에 사용되는 아랍어가 있다.

#### 4. 민족성향

필리핀은 100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과 섬에 따라 문화와 민속이 매우 다르다. (외모 또한 매우 다르다고 한다.)말레이계가 주종이며 중국(화교들이 대부분의 자본을 독점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네그리토, 메스티조등 여러 종족 간 혼혈이 많이 있다. 물론 식민 시절의 각 지배국의 혼혈도 많이 남아있다.

필리핀 민족 대부분이 오랜 식민생활로(무려 330년) 현재의 삶을 즐기는,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만족하며 순응하는 긍정적이지만 슬픈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 전체적인 감상

필리핀의 일반적인 문화(원주민들을 제외한)에는 하나같이 식민지배에 의한 고유의 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덧칠해져 있다. 물론 그것이 좋고, 멋있는 문화 일지라도, 그것은 문화 자체에 대한 감상일 뿐이다. 문화의 생성과정을 바라보면 그저 화가 나고 짜증이 났다.

초등 교육때 반일감정에 의한 것일까? 아니 그렇지 않다고 해도 화가 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누가, 어떤 존재가, 자기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정하고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

현재의 문화를 부리 뽑고 과거의 문화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아니다. 현재의 문화는 그것이 어떤 과정으로 생성 되었든 부술 수는 없다. 그저 잊지 않고, 반성하고, 인정하여 더 이상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더욱 진보적인 삶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자료 출처

-ksmeteor님의 블로그

-네이버 지식인

### ③ 필리핀 날씨

김유진

필리핀 기후는 1년내내 기온이 높은 열대 몬순기후이며 한국의 한 여름 날씨에 해당한다. 한국이 위도 37도 선상에 위치하는 반면 필리핀은 적도에서 가까운 위도 6-18도 선상에 위치한다. 그리고 계절풍의 영향에 따라 계절은 겨울여름과 우기로 나뉜다. 다만 이것은 우리나라의 4계절처럼 명확한 것은 아니다.

또 계절풍 이외에도 각 지방의 위도와 고도, 산맥 등의 지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기후가 결정된다. 이 때문에 필리핀의 기후는 상당히 지역차가 크다. 필리핀은 크게 건기, 우기의 두 계절로 나누어지며 이는 계절풍의 영향에 따라 달라진다. 지형적으로 보면 동쪽으로는 태평양이 있고 서쪽으로는 남지나해가 위치해 있어 지역적 영향의 계절풍과 맞닿아 있다.

6월부터 10월까지는 남서계절풍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내린다. 반면 11월부터 2월까지는 약한 북동계절풍의 영향으로 간간히 내리는 비와 함께 그렇게 덥지 않으면서 대체적으로 건조한 날씨를 보여 주고 있다. 3월부터 5월까지는 동쪽에서 부는 북태평양 무역풍의 영향으로 대단히 더우며, 무척 건조하다.

필리핀날씨는 지역에 따라 상당히 변화가 심하다.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더위와 비는 많이 오지 않는다. 특히 해발1524미터의 고산지대에 있는 바귀오시는 여름수도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연 평균기온이 섭씨18.3도에 불과하다.

겨울이 가장 좋은 계절, 12~2월

겨울이라고 불리는 이 시기는 여름에 비해서 비교적 기온이 낮고 비도 적다. 이런 경향은 마닐라를 포함한 루손 섬 북서부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 시즌에는 우리나라의 초가을 날씨처럼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분다. 기온이 낮다고 해도 낮에는 티셔츠 하나로 충분. 다만 밤에는 약간 서늘해지므로 트레이닝복이나 얇은 스웨터 정도를 갖고 가면 좋다. 또 건기에 해당되는 이 시기에도 태평양 동해안에서는 큰 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봄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 필리핀에서는 일찌감치 여름이 찾아온다. 연중 가장 더울 때는 그 중에서도 5월 무더위의 낮 온도는 35~40℃에 이르기까지 한다. 밤에도 기온은 그다지 내려가지 않아 대개 25℃ 정도. 다만 건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덥다고는 느껴지지 않는다.

1년 중 반이 우기, 6~12월 대개 5월에 여름이 끝나고 6월부터 우기가 시작된다. 그런데 최근엔 이상기온 탓인지 우기의 시작이 늦어지고 있다. 비는 순식간에 내렸다가 그치는 경향이 많으므로 보통은 우산이 필요없고, 비를 만났을때 잠시 쉬었다 가면 되는데 간혹 보슬비가 오래도록 내릴 때도 있다. 우기에는 태풍에 주의해야 한다. 비사야 지방, 민다나오섬 북동부, 루손섬 동해안에서는 매년 태풍에 의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④ 필리핀의 경제

### 동향

필리핀 경제는 주로 농업·경공업·서비스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 20세기말에 이르러 정부의 간섭이 늘어나긴 했지만 시장경제가 지배적이라고 한다. 물가는 구매력보다 더 빨리 상승된 반면 임금은 동아시아에서 최저 수준이다.

실성장률이 마이너스 상태인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비슷하다. 총노동력의 2/5 이상이 종사하는 농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4을 차지한다. 농민의 다수가 소작농이며 국토의 1/4 이상이 경작에 적합하나 관개시설이 부족하다.

정부와 여러 국제기구들이 관개농지를 넓히려는 여러 사업을 후원하고 있지만 농업의 자금 부족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쌀이 주요농산물이며, 몇몇 섬에서는 옥수수 재배가 주종을 이루기도 한다. 쌀의 경우 다양한 개량종들이 선을 보였고 다량의 비료가 현재 사용되고 있지만 산출량은 크게 늘지 않고 있다. 굴지의 코코넛 생산국으로 코코넛열매와 코프라분 아니라 코코스야자유를 주로 수출한다. 사탕수수·바나나·파인애플 등도 널리 재배되며, 외화 수입원으로서 종래의 마닐라삼과 담배를 대신한다.

만연된 불법 벌목행위와 아직도 존속하고 있는 이동농경방식 때문에 필리핀의 삼림은 계속 고갈되고 있다. 질 좋은 목재와 베니어판이 일본·영국·미국 등지에 대량으로 수출된다. 광업은 GDP에서 적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구리·금·철광석 등은 외화 수입원으로 적지 않은 몫을 한다. 제조업은 GDP의 1/4을 차지하며 총노동력의 1/10을 고용한다.

주요 제조업으로는 식품가공, 음료·석유제품·섬유·신발 등의 생산이 손꼽힌다.

정부는 전기 및 전자 기기 조립업을 포함한 노동집약형 산업의 육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도로는 1/7 정도만 포장되어 있으며, 마닐라와 막탄 섬의 세부 근교에 국제공항이 있다.

필리핀 제1의 항구는 마닐라에 있다. 그러나 수송의 하부구조가 빈약하여 늘어나는 농산물량을 처리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기 및 전자 제품과 부품, 코코넛 제품, 식료, 과일과 야채, 설탕과 설탕제품 등을 수출하며, 광물연료·자본재·곡물·화학제품 등은 수입한다.

무역수지는 종종 역조현상을 보인다. 주요 무역 상대국은 미국과 일본이고 해외 근로자들이 보내는 송금이 중요한 외화 수입원이다.

정부의 예산 지출은 전통적으로 수입을 초과해왔지만 1994년을 넘어서며 흑자로 돌아섰는데 외채는 1980년 이후 갑자기 늘어났다.

## (5) 필리핀 음식

### 필리핀 음식의 특징

일반적으로 동남아에서 한국인들이 음식을 먹기 힘든 이유는 음식에 사용하는 향료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한다. 하지만 필리핀의 음식은 다른 동남아 음식과는 다르게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는다고 한다. 필리핀의 음식은 향신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 담백한 음식과 짜고 달고 신 음식들이 많은데, 필리핀 고유의 음식보다 여러 다른 나라의 음식 문화가 겹쳐서 만들어진 퓨전요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그들 고유의 토착음식이 있으며 조리법과 맛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다. 공통적으로 필리핀 음식은 야채보다도 육류를 이용한 음식이 주를 이루며 그중 닭요리와 생선요리, 쌀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 필리핀 식문화

도시지역에서는 포크와 스푼을 사용하며 시골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는다. 반찬의 수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기본적으로 일식 일찬이며 부유한 집에 경우 반찬의 수가 늘어난다고 한다. 부유한 가정의 경우 가정부가 음식을 나르는데 손님부터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 순서로 시중을 들며 그 다음 집주인의 자식들이 마지막으로 음식을 받는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모두 함께 식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며 온 식구가 귀가할 때까지는 저녁식사를 미룬다. 손님이 있는 경우에는 집주인과 손님이 밥을 같이 먹지 않고 손님이 먹고 난 뒤 남은 음식들이 밥을 먹는다고 한다.

### 필리핀의 술과 주류문화

필리핀인들이 가장 즐겨 마시는 술은 산미겔(San Miguel)이라는 맥주인데 독하지 않아서 여성들도 많이 마신다. 마닐라를 떠나 지방으로 가면 필리핀의 독특한 술들을 맛볼 수 있다. 루손섬의 남쪽지역 민다나오섬에서 많이 마시고 있는 투바(Tuba)라는 술이 있는데, 이 술은 야자나무 꽃을 베어 거기에서 나오는 수액을 발효시켜 만든다. 달콤한 맛이 한국의 막걸리와 흡사하다. 그리고 루손섬의 북쪽지역에서 많이 마시고 있는 바시(Basi)라는 갈색 빛깔이 나는 술도 있다. 이 술은 사탕수수를 짠 술을 끓인 것으로서 이스트와 같은 발효 작용을 하는 나뭇잎을 넣어 만든 술이다. 산간지역에는 쌀을 반죽하여 만든 누룩에다 사탕수수를 짠 즙을 더해 만든 따보이(Tapoy)라는 술도 있다. 이 밖에도 코코넛 와인 같은 와인도 찾아볼 수 있다. 한국과 같이 잔을 서로 돌리지 않으며 조금이라도 잔이 비어있을 경우에는 즉시 잔에 술을 따라주는 것이 예의이다.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으므로 무리하게 술을 권하지는 않는다.

### 필리핀 음식의 음식은 왜 다양하나요?

필리핀 음식은 말레이족의 음식에 기본을 두고 있다. 이에 중국, 스페인, 미국 등 필리핀을 찾아온 여러 이민족들은 필리핀의 정치, 문화는 물론 음식 문화에도 강한 영향을 미쳐 독특한 맛과 조리법을 탄생시켰다. 현재 필리핀 음식에 감초처럼 들어가는 '가타(Gata)' 라는 이름의 코코넛 우유가 있는데, 이는 말레이 족들이 주로 사용하던 음식의 재료이다. 그리고 밀전병에 소를 넣고 튀긴 롬피아와 국수인 팬시트, 축제나 파티에 빠지지 않는 로스트 돼지 구이 레천은 모두 중국에 그 기원이 있다. 3백여 년 이상 필리핀을 지배했던 스페인은 필리핀의 대표적인 요리 아도보, 돼지고기, 감자, 토마토 등과 함께 넣어 끓인 국 메뉴도 개발해냄으로써 필리핀의 스텐류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또한 고급 호텔과 비즈니스 빌딩이 집중되어 있는 마카티에는 하드록 카페와 같은 세계적인 외식업체와 고급 레스토랑이 모여 있다. 이외에 작지만 개성 있는 세계 각국의 레스토랑과 분위기 있는 카페는 에르미타, 말라테, 아드리아티코 등에 모여 있다. 그 밖에 거리 곳곳에서 필리핀 고유의 패스트푸드점인 쥘리비, 패밀리 레스토랑도 쉽게 찾을 수 있어 여행자들이 필리핀 전통음식은 물론 햄버거, 스파게티 등의 익숙한 메뉴까지 식성대로 원하는 식사를 즐길 수 있다. (이 자료 조사하면서 느낀 점인데 막 여러 나라한테 이리체이고 저리체여서 불상하기도 하지만 여러 나라의 조리법을 배워 독특한 자신의 나라의 것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이 대단하다고 느낌!! - 범진 왓)

#### 전통음식 중

스페인 영향을 받은 '아도보' 라는 음식 그 중에 '치킨&포크 아도보' 가 짱이래요!!!!  
중국 영향을 받은 '레천' 맛있겠다!!!! 필리핀 가서 Most하게 많이 먹어볼 것만 같은.(best 라고 해야 하나?) - 범진 왓

#### 필리핀 전통 음식

##### 시난개그 ( Sinangag )

필리핀 볶음밥의 대명사. 요리재료는 마늘, 식용유, 소금, 후추, 간장, 고기(돼지고기,소고기, 닭고기 등), 스크램블한 계란, 새우, 양파, 파. 태국의 '카오팻'과 같으나 태국은 넣는 고기의 종류에 따라 음식의 이름이 바뀌나 -'카오팻 궁(새우)';'카오팻 무(돼지고기)';'카오팻 느아(소고기)'- 필리핀은 태국처럼 많이 구분은 두지 않는 편이다.

##### 치킨 앤 포크 아도보 ( Chicken and Pork Adobo )

돼지고기나 닭고기, 오징어를 끓인 스텐요리로 가장 대중적이고 인기있는 요리중 하나로 이중 단연 으뜸인 것은 치킨&포크 아도보로 글자 그대로 닭고기와 돼지고기를 재료로 한 요리인데 필리핀에서 가장 대중적인 음식이다. 외국인들이 뽑은 베스트 필리피노 음식에도 매년 뽑힌다.

##### 피낙벳 ( Pinakbet )

카린디리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요리로 암팔라야(한국의 오이와 비슷)와 따롱(한국의 가지와 비슷)을 주재료로 한다. 한국의 호박요리와 비슷하다.

##### 반식 칸톤 ( Pancit Canton )



국수류. 반깃 캔톤(굵은 국수)과 반깃 귀사도(가는 국수)등 재료에 따른 다양한 종류가 있다.

#### 띠노랑 따홍 ( Tinolang tahong )

한국의 포장마차에서 파는 홍합과 비슷한 요리로 특이한 점은 생강과 양파가 들어간다는 점이다.

#### 피쉬 에스카베체 ( Fish Escabeche )

일반식당에서보다는 고급 전통식당에 있는 요리로 동남아 각나라에 모두 있으나 양념 소스는 나라별로 다르다. 필리핀은 달콤한 맛이 더 강한 편이다.

#### Guinisang Sayote ( 또는 chayotte)

동네음식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요리로 필리핀 전통요리라기보다는 퓨전쪽에 가깝다. 원래는 멕시코계나 화교인의 요리다.

#### 암팔라야 오믈렛 ( Ampalaya Omelet )

가장 보편적인 오믈렛으로 고소한 맛이 독특하다

#### 닐라강 마니 ( Nilagang Mani )

삶은 땅콩. 로하스 볼리바드나, 카비떼, sm, 에드사, 브렌디아, 탁프 아비뉴 등 차가 막히는 곳이면 어느곳이든 만날 수 있는 그야말로 심심풀이 땅콩인 셈이다. 맛은 한국의 땅콩과 같다.

#### 아로즈 아 라 쿠바나 ( Arroz a la Cubana )

쿠바인이 즐겨먹는 타입의 요리. 지방을 여행하다보면 그리 어렵잖게 만날 수 있는 요리.

#### 시니강 나 바보이 ( Sinigang Na Baboy )

생선이나 돼지고기를 넣어 끓인 야채수프로 우리의 국과 같은 음식이다. 생선을 넣은 것은 '시니강 나이스다 (Sinigang Naisda)' 돼지고기를 넣은 것은 '시니강 나 바보이 (Sinigang Na Baboy)' 라고하며 밥과 함께 나온다.

#### 시니강 나 씨푸드 ( Shrimp Sinigang )

새우를 비롯한 해물을 같이 넣은 시니강 스프로 연한 생강맛에 담백한 해물향이 일품인 요리로 필리핀 전통 요리중 가장 사랑받는 요리이기도 하다.

#### 레천 가왈리 ( Lechong Kawale )

통돼지 바베큐인 레천(Lechon)을 썰어 담은 요리.  
생일이나 피에스타(마을축제)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메뉴로 서민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요리중 하나다.

#### 반싯 말라본 ( Pancit Malabon )

말라본 지방에서 만들어진 국수요리.

#### 띠노랑 마녹 ( Tinolang Manok )

생강을 넣은 닭고기 요리. 아열대 기후가 낡은 전형적인 음식이라 볼 수 있다. 외국인이 처음 먹기에는 조금 힘들진 모르지만 전날 술을 한 잔했다면 결코 그 맛을 잊지 못할 것이다.

#### 돼지고기 바베큐 ( Pork BBQ )

단연 필리핀 최고의 맥주안주. 정식으로 먹는 요리이기보단 간식과 안주용으로 더 보편적인 바베큐 요리로 산미겔 맥주와 곁들여 먹으면 최상이다.

#### 룸피아 (Lumpia)

얇은 밀전병 속에 고기와 야채를 채워 튀겨 먹는 음식으로 만두와 같은 맛이다. 새우, 닭고기, 돼지고기에 야채를 채운 스프링롤. 룸피아 상하이는 고기만 넣고 튀긴 작은 스프링롤이다. 길거리에서도 판다.

#### 카레카레 (Kare-Kare)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땅콩소스와 바나나, 팥지콩, 야채, 양파와 곁들여 먹는 요리. 한국에는 없는 음식이기에 그 맛도 독특하게 느껴진다.

#### 바궁 알라망 ( Bagoong alamang )

작은 새우를 절여서 만든 음식 (Bagoong은 작은 새우를 으갠 것을 일컫는 말)

#### 암팔라야 샐러드 ( Ampalaya Salad )

덜익어 맛이 쓴 멜론을 잘게 썰어 만든 샐러드 요리

#### 파파야 샐러드 ( Papaya Salad )

샐러드를 만드는 파파야는 잘익은 파파야가 아니라 아직 덜익은 녹색의 파파야를 재료로 한다. 즉흥적인 맛보다는 뒷맛이 고소한 게 특징이다.

#### 칼로스( Callos )

페퍼 콘(peppercorns)이라 부르는 작은 옥수수를 주재료하여 토마토 소스를 이용한 카린디아의 주된 메뉴에 해당하는 요리

#### 아로스 칼도 ( Arroz Caldo )

필리핀의 서민들이 가장 즐겨먹는 요리로 한국의 '죽'에 해당하고 태국음식의 '카오뎅'과 같다. 아침시간이면 동네의 모든 식당에서 아로스 칼도를 만날 수 있다.

[출처] 필리핀 음식 소개|작성자 한

필리핀의 간식, 디저트

#### 만 두 ( Siopao )

속은 돼지고기를 으갠 부드러운 고기를 대부분 쓰며 필리핀에 화교가 많은 탓에 자연스럽게 필리핀 음식으로 정착한 중국요리인 썸이다. 사회적으로는 흔히들 여성의 가슴을 빚대어 말

하기도 하는데 이는 '작다'는 뜻이다. 실제로 한국에서 보편적인 찐빵보다 작고 만두쪽에 가깝다. 그러기에 만두는 시아파오(또는 소파오)라하고 찐빵은 쇼마이라 한다.

#### 레체 플란 ( Leche Flan )

필리핀에서 가장 보편적인 디저트 음식으로 아래의 세종류가 있다.

Original Leche Flan Recipe

Kalabasa (Pumpkin) Leche Flan

Light and Fruity Caramel Custard

#### 반 데 살 ( Pan de sal )

필리핀에서 가장 보편적인 아침식사 메뉴중 하나. 이른 아침이면 동네를 다니는 반 데 살 행상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짭짤하고 딱딱딱한 반 데 살은 맛이 그만이다.

#### 예마 Yema (Custard Candy)

평시에 먹기보다는 생일이나 행사때 애용되는 전통메뉴에 해당하는 디저트

#### 유 코이 ( Ukoy )

잘게 썰은 감자와 껍질을 벗긴 새우, 그리고 파우더를 재료로 간식용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요리

#### 크리스피 파따 (Crispy Pata)

갈색으로 튀긴 돼지 발과 앞 다리. 모양새는 한국의 족발과 같고 맛은 족발보다 훨씬 낫다. 돼지껍질을 마늘, 소금, 후추, 생강등으로 조리하여 기름에 튀겨 먹는 것으로 양념과 조리법이 다양하다. 무척 고소하고 바삭바삭하지만 기름지다.

#### 방구스 (Bangus)

milkfish에 속을 채운 다음 가볍게 구운 것.

#### 굴라이 (Gulay)

야채 요리로 때때로 코코넛액으로 끓이기도 함.

#### 이니호오 (Inihaw)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도 맞는 음식으로는 이니하우(Inihaw)라는 생선 구이로서 주로 새우, 게, 대하, 굴, 오징어, 생선, 바닷가재를 구워내는 것이다. 특히 민다나오 섬의 다바오 지방에서는 구운 참치머리 요리인 이니하우 나팡가(Inihaw napanga)가 유명하다. 후식으로 곁들여지는 열대 과일들은 음식의 맛을 더욱 빛내준다.

#### 아사도 (Asado)

훈제고기를 신 파파야와 함께 먹는다.

#### 메뉴도 (Menudo)

저민 돼지고기를 사각형으로 자른 감자와 토마토, 고추의 일종인 퍼프리카 (Paprika), 양파 등과 함께 넣어 끓인 국.

슈림프 레보사도 (Shrimp Rebosado)

새우에 버터를 발라 구운 후 밀가루와 버터를 함께 볶아 만든 소스 '루 (Roux)'를 뿌려 먹는 요리.

벳초이 (Batchoy)

소뼈를 푹 고아 만든 국물에 쇠고기나 돼지고기 간 등의 내장을 곁들여 먹는 국수.

아프리카다 (Afritada)

쇠고기를 올리브유로 조리하고 완두콩, 감자, 후추 등을 넣은 토마토 소스에 스페인식소고기

발룻 (Balut)

세계에서 가장 기이한 음식 중 하나로 수정은 되었지만 부화되지 않은 오리알을 17일간 인큐베이터에 두었다가 삶은 것. 필리핀에선 가장 서민적이고 인기있는 스태미너식.

비빙카 (Bibingka)

코코넛 우유와 화이트 치즈를 친 달콤한 떡. 디저트용으로 쓰인다.

마미 (Mami)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의 미수프 같은 물국수

몽고스 (Mungos)

어린 콩으로 레바논의 Humus와 비슷

삐냥갓 (Pinangat)

비꼴 지역의 채식음식으로 비꼴 익스프레스로 불리는 매운 고추를 섞어 놓았다

[출처] 필리핀 간식&디저트 소개|작성자 한

⑥ 필리핀의 물가와 교통

전수빈

1. 화폐

-화폐단위 : 페소(Peso), 센타보(centima)

1 peso = 100centi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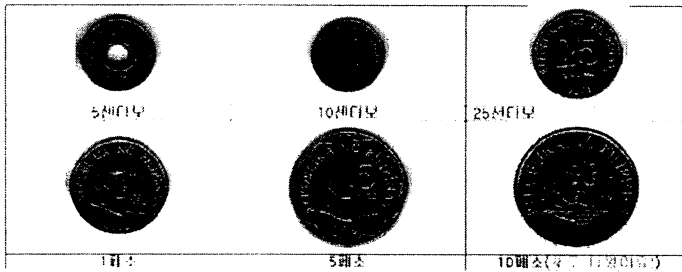
-동전 : 5 centima, 10 centima, 25 centima, 1 peso, 5 peso, 10 peso

-지폐 : 20 peso, 50 peso, 100 peso, 200 peso, 500 peso, 1000peso

\* 20 peso와 200 peso는 서서히 사라지는 중

-환율 : 1 peso = 24.37 won (2008년 9월 1일 기준)

· 동전



· 지폐



\*위의 사진은 실제 크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 2. 물가

\*과일, 고기 등 식료품은 싸지만, 문구용품이나 의류 등은 품질 대비 썩 좋은 가격은 아니다.

- 돼지고기 1 kg : 170peso-200peso
- 소고기 1 kg : 170peso-270peso
- 닭고기 1마리 : 120 peso
- 일본쌀(고시히카리) 10 kg : 1000peso
- 중국쌀 25 kg : 1000peso
- 필리핀쌀 1 kg : 20peso 40peso
- 망고 1 kg(4개) : 70peso
- 망고스틴 1kg : 100peso
- 바나나 한다발 : 70peso-100peso
- 람부탄 1 kg : 80peso
- 두리안 1개 : 400peso-700peso

### -맥주 1L : 40peso

- 콜라 2L : 40peso
- 할로할로 : 45peso
- 피자헛 피자 2인용 : 125peso
-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 : 50peso
- 영화관람 : 50peso-80peso
- 티셔츠 : 300peso-700peso
- 바지 : 500peso-1000peso
- 국제전화(한국) 5분 : 100peso
- 경우 1L : 46.48peso
- 휘발유 1L : 55peso

\*한국 식료품은 한국의 1.5배 정도

\*필리핀은 소비자 가격이 없어 가게마다 가격이 틀림

\*같은 제품이라도 필리핀 로컬제품과, 수입품은 가격이 틀리다.

\*지역별 물가 차이도 큼

전체적으로 5년전에 비해 3배정도 물가가 오름. 국제적인 유가와 곡물가 인상으로 계속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어 정확한 가격조사가 힘들. 이것 보다 비싸도 놀라지 말자. (기사 참고)

### 필리핀 물가 상승률, 14년만에 최고치... 6월 11.4% 기록

기사 작성일 : 08-07-14 13:15

필리핀 물가 상승률이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필리핀 아우구스토 산토스 사회경제부 장관은 지난 5월에 이어 계속되는 식량 가격과 유가 상승으로 필리핀 물가 상승률이 6월에도 11.4%를 기록하면서 1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산토스 장관은 "유가와 식량 가격 상승으로 지난 6월 필리핀 물가 상승률이 11.4%를 기록, 5월의 물가 상승률인 9.5%를 2% 가량 넘어섰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1994년 5월 필리핀의 물가 상승률이 11.5%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다.

필리핀 정부가 당초 올매 물가 상승률을 3%에서 5%라고 예상했던 수치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앞서 필리핀의 물가 상승률이 두자리수에 달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필리핀 국가경제개발 당국은 쌀과 옥수수 등 곡물류 가격이 지난 6월 42.2% 가량 상승했다고 말했으며 5월 18.2%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던 유가는 지난 6월 22%의 물가 상승률을 보였다고 전했다.

숫자로는 감이 안오는 사람들은 현재 우리나라 물가가 오르는 수준을 생각하면서 아래 글을 읽어봅시다.

**7월 물가 상승 5.9%, 10년만에 최고**  
 기사입력 2008-08-02 10:42

7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 98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제유가 상승 등의 원인으로 6월 5.5%에 이어 7월에는 5.9%에 이르렀다. 이같은 상승률은 지난 98년 11월(6.8%) 이후 9년7개월만에 최고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들어 △1월 3.9% △2월 3.6% △3월 3.9% △4월 4.1% △5월 4.9% 등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하락)

### 3.교통

- 트라이 시클 : 오토바이 옆에 바퀴 세 개 달린 보조차?를 끌고 다닌다. 기사 포함 6명이 탈 수 있으면 가격은 20peso 정도이다. 자전거로 끌고 다니는 바이씨클도 있다. 가격은 8-10peso.
- 지프니 : 지프차를 개조해 만든 차로 필리핀에서 가장 대중적인 이동수단이다. 각자 나름의 노선을 가지고 운행하지만, 정해진 정류장이 없다. 40명까지 탈 수 있으며, 가격은 8peso이다.
- 택시 : 차가 엄청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으니 잘 골라서 타야한다. 승차거부도 잘 한다. 가격은 미터제인데, 기본요금 30peso에서 2.5peso 씩 오른다.
- 메가택시 : 뱅처럼 생긴 큰 차인데 일종의 합승택시다. 가는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타고 내린다. 가격은 20-30peso이다.
- 버스 : 우리나라의 좌석버스처럼 생겼다. 에어컨이 있는 차와 없는 차 중 골라 탄다(없는 것이 더 싸다). 차장 오빠들이 돌아다니면서 돈을 걷는다. 가격은 20-25peso이다.
- MRT, LRT : 전철이다. 돈을 내면 카드를 주고, 나갈 때에는 다시 돌려준다, 음식물은 가지고 들어갈 수 없고, 가끔 남자와 여자가 분리되기도 한다. MRT와 LRT는 서로 관통하는 2개의 노선이다. 가격은 17peso.

### [BONUS] 필리핀에서 직불카드로 돈 찾기.

곳곳에 ATM인출기가 설치되어 있고, 종류별로 인출한도 액이 다르다. 보통 4000-5000peso 정도 인출이 가능하며 은행이나 큰 Mall 옆에 위치한 인출기의 경우 20000peso까지 가능하다. 필리핀 전역에 퍼져있는 BPI(Bank of Philippines)나 BDO(Banco de Oro)에서는 Plus카드가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Cirrus나 Mestro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기기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카드삽입-언어선택(English/Tagalish)-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비밀번호)입력-Withdraw(인출)  
 -Saving(예금)-액수 입력(잔액조회 안됨)-영수증 여부 선택-인출 완료

6. 간단한 회화

① 따갈로그어

따갈로그어	영어	한국어
<b>인사말</b>		
Mabuhay !	Hello !	
Kumusta ka ?	How are you ?	안녕하세요
Salamat.	Thank you .	감사합니다.
Magandang umaga.	Good morning.	아침인사
Magandang hapon.	Good afternoon.	오후인사
Magandang gabi.	Good evening.	저녁인사
<b>자주 쓰는 표현들</b>		
Hindi ako marunong mag-Tagalog.	I cannot speak Pilipino.	저는 따갈로그어를 말할 줄 모릅니다.
Marunong ka bang mag-Ingles.	Do you speak English?	영어를 말할 줄 아세요 ?
Maiintindihan Mo?	Do you understand ?	이해 하세요 ?
Hindi ko maiintindihan.	I cannot understand.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Paki dahan dahan lang ang pagsalita.	Please speak slowly.	천천히 말해 주시겠어요.
<b>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b>		
Saan ang CR ?	Where is the rest room ?	화장실이 어디예요 ?
P'wedeng makigamit ng Telepono ?	May I use the telephone ?	전화 좀 쓸 수 있을까요?
Tumawag kayo ng duktor ?	I need a doctor.	저는 의사가 필요해요.
<b>물건값을 흥정할 때</b>		
Ano ito ?	What is this ?	이게 뭐예요?
Magkano iito ?	How much is this ?	이건 얼마예요?
Wala ng tawad ?	Any discount ?	디스카운트 돼요?
Expensive.	Mahal.	비쌌니다.
Cheap.	Mura.	싸다.
<b>기타 유용한 표현들</b>		
Aywan (ewan) ko.	I don't know.	나는 몰라
Ayaw ako. (ayoko)	I don't like.	싫어
Bahala na.	Happen what may.	월대로 되라
Kaunti lamang. (lang)	Just a little.	조금만
Kung minsan.	Once in a while.	가끔
Gising na.	Wake up.	일어나라
Hindi bale.	Never mind.	상관않는다
Hindi naman.	Not so.	그렇지 않아
Hintay ka. (Teka)	Wait for a moment.	잠시만 기다려.
Huwag na. Salamat.	No more. Thank you.	충분해요. 감사합니다.
Bahala ka.	It's up to you.	당신 맘대로.
Madali ka. (Dali ka)	Be quick, you.	빨리 하세요.
Mamaya na.	Later on.	잠시뒤에.(기다리라는 뜻)
Maraming Salamat.	Thank you very much.	대단히 감사합니다.
Ano po? (or) Ano?	What did you Say?	뭐라 그랬어요?
Sandali lamang(lang).(점잖은 표현)	Just a moment.	잠시만.
Sige na.	Go on. Get going.	계속 하세요.
Sayang.	What a pity.	안됐네(유감의 뜻)
Tama na	It's all right. It's enough.	됐어.(충분해)
Tayo na.(Tenat)	Let's go.	자 갑시다.



## 기본 회화

필리핀어를 알니까? Marunong ka bang Tagalog?

조금입니다. Kaunti lang.

가능합니다. Puwede.

불가능합니다. Hindi Puwede.

좋아합니다. Gusto ko.

싫어합니다. Ayaw ko

모릅니다. Ewan ko. Hindi ko alam.

무슨 말입니까? Anong sinabi mo?

아프다. Aray.

## 필리핀어 기본

예. Oo.

아니오. Hindi.

감사합니다. Salamat.

대단히 감사합니다. Maraming Salamat.

천만에 말씀. Walang Anuman (공손함을 표현할 때는 말끝에 PO나 HO를 붙이면 됩니다)

실례합니다. Excuse me.

미안합니다. I,m sorry

만나서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안녕히 계십시오. Paalam.

건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Kumusta ka?

건강합니다. Mabuti naman.

그리 건강하지 못합니다. Hindi mabuti.

여쭙어 봐도 좋겠습니까? Puwede bang magtanong.

## 필리핀어의 숫자

1 isa (잇사)	8 walo (왈로)
2 dalawa (달라와)	9 siyam (시얌)
3 tatlo (앗올로)	10 sampu (삼뿌)
4 apat (아팻)	11 labing-isa (라빙 잇사)
5 lima (리마)	12 labing-dalawa (라빙 달라와)
6 anim (아님)	20 delawan-pu (델라완뿌)
7 pito (삐또)	100 daan

## 자기소개

나 Ako 당신 Ikaw 그(그녀) Siya

나는 길동입니다. Ako ay si Kildong  
 한국인입니다. Ako ay Korean  
 당신의 성함은? Anong pangalan mo?  
 당신은 필리핀입니까? Ikaw ba ay Pilipino?  
 (ba 가 들어가면 의문문이 됨)  
 나이가 얼마입니까? Ilang taon ka na?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Saan ka nakatira?  
 아드님은 잘 있습니까? May anak ka ba?  
 직업은 무엇입니까? Anong trabaho mo?  
 좀 기다려 주십시오. Sandali lang.(Teka muna.)  
 여기에 써주십시오. Pakisulat dito.  
 이것은 무엇입니까? Ano ito?  
 물론 Siyempre  
 정말? Talaga

--은 어디입니까? Saan ang ~~?  
 --이 필요합니까? Gusto Ko nang ~~?  
 --은 있습니까? Mayroon ba ~~? Meron ba <메론 바>도 같은 의미  
 --은 가능합니까? Puwede ba ?(뿌웨데 바 ?)

### 이것을 알면 무엇이든 된다

--은 어디입니까? Saan ang ~~?  
 --이 필요합니까? Gusto Ko nang ~~?  
 --은 있습니까? Mayroon ba ~~? Meron ba <메론 바>도 같은 의미  
 --은 가능합니까? Puwede ba ?(뿌웨데 바 ?)

알겠습니다. Naindi Ko naintindihan.  
 모르겠습니다. Hindi ko naintindihan.  
 누구입니까? Sino?  
 무엇입니까? Ano?  
 언제입니까? Kailan?  
 얼마입니까? Magkano?  
 어느 정도입니까? Ilan?  
 화장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Nasaan ba C.R.?  
 남 Lalake  
 여 Babae  
 (C.R은 Comfort Room의 약자)  
 몇시입니까? Anong Oras na?  
 덥습니다. Mainit  
 피로합니다. Pagot  
 배고픉니다. Gutom na ako.  
 배부릅니다. Busok na ako.

### 환전소에서

환전해 주십시오. Pakipalit ang salapi.  
 소액권도 주십시오. Gusto kong magpabarya.

### 택시에서

마닐라 호텔까지 Sa Manila hotel  
 마닐라 호텔까지 부탁드립니다. Dalhin mo ako sa Manila Hotel.  
 마닐라호텔까지 얼마입니까? Magkano papuntang Manila hotel?  
 쪽바로 Derecho  
 오른쪽으로 Sa kanan  
 왼쪽으로 Sa kaliwa  
 돌아서 Pakikot  
 세워서 Para  
 여기입니다. Dito na lang.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Pakihintay dito  
 여기 Dito  
 저기 Diyan  
 건너편 Doon  
 안으로 Sa loob  
 바깥으로 Sa labas

### 버스, 지프니에서

계산 Bayad  
 쿠바오까지 Sa Cubao  
 다리에 세워주십시오 Sa tabi lang ho.  
 ---에는 어떻게 갑니까? Papano ang papunta sa ~~?  
 ---에 가는 버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Saan bang bus papunta sa~~?  
 이 마을은 무엇이라 부릅니까? Anong bayan ito?  
 \* 지프니와 버스안에 보시면 가끔 bariya lang sa umaga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잔돈만"이라는 표현입니다.

### 레스토랑에서

식당 Kainan  
 음식 Pagkain  
 메뉴를 보여 주십시오. Patingin ng menu.  
 무엇을 좋아하십니까?(무엇을 드시겠느냐는 뜻) Anong gusto mo?  
 맥주가 좋습니다. Gusto ko ng(낭) beer.  
 맥주가 있습니까? Meron bang beer?  
 맥주를 주십시오. Pakibigyan mo ako ng beer.  
 찬물 malamig na tubig.  
 먹읍시다. Kumain na tayo.맛있다. masalap.  
 맛없다. hindi masalap.  
 끝났다. Tapos na.  
 끝났습니까? Tapos ka na ba?  
 아직 Hindi pa.  
 계산 bayad.  
 (식당에서 계산을 하려면 엄지와 인지로써 사각형을 만들어 웨이터에게 보이면 계산서를 가져 온다)

### 레스토랑 기본단어

커피 kape	밥 kanin	밀크 gatas	바나나 saging
설탕 asukal	파인애플 pinya	뜨거운 물 mainit na tubig	망고 mangga
생선 isda	수박 Pakwan	야채 gulay	하나 더 isa pa
새우 hipon	스푼 Kutsara	소 baka	피클스 atsara
돼지 baboy	병 bote	부엌 manok	글라스 baso

### 쇼핑 필수 문장

이것은 무엇입니까? Ano ito?  
 얼마입니까? Magkano?  
 1킬로에 얼마입니까? Magkano bang isang kilo?  
 비싸다. mahal.  
 싸다. mura.  
 예누리해서 May tawad ba  
 어느 것이 더 싼니까? Alin bang mas mura?

### ② 영어

#### 1) 공항에서

① 탑승권 좀 보여 주실 수 있나요?  
 May I see your boarding card?  
 ② 이제 어디 가야 돼요?  
 Where should I go now?  
 ③ 여권 주실 수 있으세요?  
 May I see your passport, please?  
 ④ 여기 있습니다.  
 Here you are.  
 ⑤ 어디서 오셨습니까?  
 Where are you from?  
 ⑥ 담요 하나만 주실 수 있나요?  
 May I have a blanket?  
 ⑦ 마중 나와 줘서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coming out to meet me.

#### 2) 물어볼 때

① 죄송하지만, YMCA호텔 가는 길 좀 가르쳐주실 수 있나요?  
 Excuse me. Can you tell me the way to the **YMCA Hotel**?  
 (YMCA호텔은 원하는 목적지로 바꿔서)  
 ② 여기서 London Tower까지 걸어갈 수 있나요?  
 Can I walk to the London Tower from here?  
 ③ 공중전화가 어디 있을까요?  
 Where can I find a public telephone

(4)죄송하지만 시내 중심가로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Excuse me, Please. How can I get to the town center?

(5)택시 승차장이 어디 있을까요?

Where is the taxi stand?

(6)여기로 데려다 줄 수 있어요?

Could you take me to this place?

(7)얼마나 걸려요?

How long will it take?

### 3) 환전할 때

(1)실례하겠습니다. 어디서 환전합니까?

Excuse me. Where can I change some money?

(2)환율이 어떻게 되요?

What's the rate of exchange?

### 4) 식당에서

(1)이 부근에 좋은 식당 하나 추천해주세요.

Can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near.

(2)두 사람 앉을 수 있는 자리 좀 내주세요.

A table for two, Please.

(3)메뉴 좀 주실 수 있을까요?

May I have the menu, Please?

(4)계산서를 주세요.

Please let me have the bill.

(5)내가 계산할게.

I'll take care of the bill.

### 5) 물건사기

(1)그냥 둘러보는 중이에요

I'm just looking around.

(2)비싸다.

This is too expensive.

(3)팍아 주세요.

Can you give me a discount?

(4)다 해서 얼마예요?

How much are they in all?

(5)포장 좀 해주세요.

Please wrap it up.

(6)입어 봐도 되나요?

May I try it on?

(7)몇 시에 가게 열어요?(달아요?)

What time does the store open(close)?

6) 관광 할 때

① 꼭 구경해야 할 곳 몇 군데를 가르쳐줘.

Please tell me some of the Please I should visit.

② 입장료가 얼마예요?

How much is the admission fair?

③ 사진 찍어도 돼?

Is it permitted to take pictures?

④ 매표소가 어디 있나요?

Where is the ticket office?

7) 문제가 발생 했을 때

① 교환 해줄 수 있습니까?

Can you change it?

② 난 카메라와 여권을 잃어버렸어.

I have lost my camera and passport.

③ 잃어버린 물건을 어디서 신고합니까?

Where can I report my lost articles?

8) 다쳤을 때

① 이 근처에 병원 있나요?

Is there a hospital around here?

② 약국 어디 있나요?

I'm looking for a pharmacy.

③ 여기가 아파요.

I have a pain here.

④ 아 많이 심각해요.

It's serious.

⑤ 나 거의 못 먹어.

I am eat very little.

9) 일상 언어

① 조심해!

Take care

② 아 나 서둘러야 돼.

I have to hurry.

③ 준비됐지?

Are you ready?

④ 내말 알아들었어?

Do you understand me?

(5)미안하지만 못 알아듣겠는데.

Sorry, I don't understand

(6)몇시까지 와야 돼?

What time should we come back?

(7)여기가 어디야?

Where are we now?

(8)아 진짜 부러워.

I am so jealous

10)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

(1)아 그냥 너 알아서 해

Just do it by yourself

(2)너도 남한테 베풀면서 살아라

you live like giving others alms too.

(3)이렇게 심하게 말하는 거 처음 듣네.

I have never said things so harsh like this before.

(4)나는 시비 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냐.

I am not a person who likes to pick fights.

(5)말이야 쉽지.

It's easier said than done.

(6)당신이 곤란해질까봐 그랬는데 모두 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I did that as I was afraid you got troubled, but I think what I've thought is wrong.

## 7. 출국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

가. 필리핀국 비자안내 - 1년 이하의 체험학습을 하므로 단기비자가 필요하다.

가. 무사증 입국

◦ 필리핀은 자국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목적으로 입국하는 한국인에 대하여 입국 일로부터 21일간 무사증 체류를 허가함. (9a 비자)

- 이는 필리핀의 일방적인 조치로 단기관광을 하는 외국인들에게 제공되는 제도임.

◦ 필리핀 공항만 입국 시에 이민국 직원이 입국스탬프에 체류가능 기간을 날인해 줌.

나. 59일체류 관광비자 (9a 비자)

◦ 필리핀에 입국하기 전에 한국에 주재하는 필리핀대사관에 관광을 위한 비자를 신청할 경우 59일간 여행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상대국을 방문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이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관광비자의 연장

◦ 관광비자는 비자만료일 **2주일전**에 주재국 이민청 본부 및 지방사무소에서 연장이 가능

함.

- 최초 관광비자 연장 시에는 38일, 이후에는 30일씩(1달 단위) 연장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 \* 최초 연장시에는 2,020페소의 **연장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이후 연장시에는 1,010페소 내지 1,700페소 정도의 연장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한국인의 경우에는 최대 연장가능 기간은 6개월(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1년까지)로 더 이상 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출국 후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함.
- 6개월 이후의 관광비자 연장의 경우 본청에서만 가능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음.
- \* 관광목적으로 6개월이상 체류한 후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 과거 필리핀내 체류상황이나 정확한 입국목적은 소명하지 못할 경우 공항입국심사 과정에서 불법활동 가능성을 이유로 입국거부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 체류하는 한국인들 중 많은 수가 중개인이나 여행사를 통해 비자를 연장하고 있으나 사기나 위조연장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으니 자신의 비자연장 문제는 이민청 등을 직접 방문하여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 필수적임.

#### 나. 필리핀 어학연수시 SSP 취득 관련 안내

-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비자를 소지하거나(장기비자 소유자),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필리핀 이민청으로부터 SSP(Special Study Permit)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SSP없이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나 공부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민법 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됩니다.
- 만18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SSP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는 관광비자 소지자는 영어연수뿐만 아니라 모든 교습(개인교습 포함)을 할 때 SSP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필리핀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허가증인 SSP는 필리핀이민청 본청에 정식 등록된 어학원(또는 정식학교)에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민청에 요청서를 발송하면, 개인이 수수료를 지급하고 발급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학원을 선택하실때는 이민청에 정식등록된 어학원인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SSP 발급신청 구비서류(출처: 필리핀한인회 주소록)
- Certificate of Acceptance from the school and the same (입학허가서: 반드시이민청의인증-accredited-을 받은기관)
- Letter of request(요청서)
- Photocopy of Passport(여권사본:신분면 및 비자면)
- Affidavit of Support and the Proof (재정보증인의 재정보증서)
- Certificate from the bank (재정보증인의 한국은행잔고증명서)
- 재정보증인과 연수생 본인의 관계입증 서류 (영문주민등록등본 등)
- 연수생 본인의 현지 은행통장 사본

#### 다. 여행자 보험사용 안내



해외 활동 참가시 가져가야 할 보험 관련 서류

1. 보험증서 지참

2. 해외 보험 약관책자 지참 (또는 해외 보험약관 책자 3page 국가별 우리말서비스 전화번호  
호와 그 뒤에 있는 진단서와 상해 보험료 청구서 복사본 지참)

사고 발생시 처리 과정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우리말 도움 서비스를 통해 수시 문의 가능  
(보험약관 책자에서 국가별 비상 전화 번호 열람)

1. 다쳤을 경우 처리 절차

- ① 우리말 도움 서비스로 전화 연결하여 처리 문의

- ② 병원에 이동 치료

- ③ 치료비 납부시(①번 처리를 추천함. 단, 보험증권 지참 요망)

- 현금이 없는 경우 : 우리말 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각국 SOS 회사의 Medical Expense Guarantee Service가 해결
- 현금으로 본인이 지출한 경우 : 한국에 돌아와 메디컬리포트와 상해 보험금 청구서 제출 후 보험처리

◆ 병원 퇴원시 꼭 받아야 할 서류

- ① 담당 의사가 작성한 메디컬 리포트(진단서) 작성 : Attending Physician's Statement

- ② 병원 퇴원시 받는 오리지날(Original) 영수증

◆ 보험료 청구시 필요한 서류

- ① 메디컬 리포트 - 담당의사 작성

- ② 병원에서 받은 오리지날(Original) 영수증 - 입원한 현지 병원 작성

- ③ 상해(질병) 보험금 청구서 (본인작성)

- ④ 증권서 복사본

◆ 보험료 청구방법

- ① 보험 담당자와 상의 후 등기우편 접수로 앞의 <보험료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

- ② 보험회사 직접 방문 접수시는 앞의 <보험료 청구시 필요한 서류>의 서류지참

2. 물품을 잃어 버렸을 경우<도난 또는 사고> 처리 절차

\* 단, 본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만 혜택 가능,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험료를 받기가 힘들다

- ① 우리말 도움 서비스로 전화 연결 사고 신고 및 처리 문의

- ② 현지 사고 현장에서 가까운 경찰서에서 신고 후 필요 서류 작성

- 경찰이 작성한 경찰 리포트(Police Report) 작성 (경찰 직접 서명)

◆ 보험료 청구시 필요한 서류

- ① 경찰 리포트 - 현지 경찰 작성

- ② 상해(질병) 보험금 청구서 - 본인 작성

- ③ 증권 복사본

◆ 보험료 청구방법

- ① 보험 담당자와 상의 후 등기우편 접수로 <보험료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

- ② 보험회사 직접 방문 접수로 앞의 <보험료 청구시 필요한 서류> 지참

## 8. 비상시 참고사항

### 여행 트러블과 대처방법

#### 가. 여권을 분실했어요

만일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바로 마닐라의 한국 대사관에 가서 재발행 수속을 밟아야 한다. 지방에서 분실한 경우도 전화로 연락해 두는 것이 좋다.

- ① 먼저 분실한 곳으로부터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Police Report(분실증명확인서)를 받는다.
- ② 현지공관(한국 영사관)에 가서 여행증명서(Travel Certificate)을 발급 받는다.

- ◆ 여권 재발급 신청시 필요사항 : 사진 2매, 여권 번호와 발행 년/월/일, 여권 분실증명서(현지 경찰서 발행), 입국증명서를 작성하여 여행증명서와 같이 발급받아야 한다. 여행증명서만으로는 다음 여행지로의 여행이 불가능하여 바로 귀국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목적지로 가야할 시는 경유지란에 다음 목적지를 기입해야 계속 여행할 수 있다.
- ◆ 여권과 사진, 여권번호와 발행 연월일을 메모해 놓은 것을 한 군데에 넣어 두면 함께 분실될 수 있으므로 따로 보관해야 한다. 재발행에 걸리는 시간은 사진을 한국에 보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약 2주일 걸린다. 귀국편의 탑승지 국가나 그 나라로 향하는 도중에 분실한 경우는 귀국증명서를 발급받아 귀국할 수 있다. 이때 약 2~3일 걸린다. 역시 사진과 신청서가 필요하다.

#### 2. 비행기 티켓을 분실했어요.

- ① 해당 항공사의 현지 공항 또는 시내의 사무실로 가서 Lost Ticket Re-issue를 신청한다. 항공사에서는 항공권 발권지로 (한국사람인 경우 대개 서울) 전문을 보내서 Re-issue Authorization을 현지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현지에서 받는다.
  - ② 항공사에서 항공권번호와 발권년월일, 일정을 확인하는 데는 일정 시일이 걸리며, 해당항공사의 예약 기록이 확인되면 항공권이 재발급 된다. 재발급 수수료가 티켓 1장당 약 USD 50 정도 있다.
- ◆ 아시아나 항공 02-892-5688

#### 3. 여행비용을 잃어버렸어요.

- ① 현금을 분실했을 때 : 이 경우는 대책이 없으면, 한국으로부터의 송금이 불가피하다. 자신이 현재 있는 도시에 한국 외환은행 지점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집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여권 번호와 영문이름을 정확히 알려주고, 어느 나라 어느 도시의 한국 외환은행지점으로 송금을 부탁하면 된다. 송금은 빠르면 1~2일, 늦어도 1주일 안에 도착합니다. 송금된 돈을 찾을 때는 송금된 지점의 은행으로 가서 여권만 보여주면 된다. 송금은 한 종류 이상의 외국화폐로 보낼 수 없고, 송금할 때 그 나라 화폐로 보내면 수수료도 들지 않는다.
- ② 여행자수표(T/C)를 잃어버렸을 때 : 여행자 수표를 처음 샀을 때, 수표의 일련번호를 수

첩에 적어 두어야만 여행자 수표를 분실했을 시 빨리 찾을 수 있다. 만약, 여행자 수표를 분실했을 경우, 먼저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분실 신고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여행자 수표의 번호를 기입한다. 그리고 나면 잃어버린 액수만큼의 금액을 재발행 해준다. 소요 시간은 1~3일 이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여행자 수표에 본인 사인이 없거나, 상하 사인이 두군데 있으면 무효이다. 요즘은 부정 신고자가 많아서 엄격하게 조사하기 때문에 정확히 잃어버린 액수만을 신고해야 한다.

- ◆ 필요 서류 : 여권, 분실 증명서(현지 경찰서), T/C 발행 증명서(은행에서 주는 T/C 구입자용 여분), 아직 사용하지 않은 T/C 번호.
- ③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때 :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현지의 발매회사, 대리점, 지점에 신고하면 되지만 다소 돈이 들더라도 한국의 신용카드 발행점에 직접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분실시를 대비해서 신용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을 기록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 4.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 ① 공항에서 'Baggage Claim'이라고 쓰여있는 수화물 분실신고소에 가서 신고를 한다.
- ◆ 필요사항 : 화물 보관증서(Baggage Claim Tag)에 가방의 형태, 크기, 색상 등을 자세히 알려 주어야 한다.
- ② 화물을 반환받을 투숙 호텔이나 연락처를 투숙 호텔이나 연락처를 기재 후 다음 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일정을 알려주고 분실증명서를 받는다.
- ③ 화물을 찾지 못했을 경우 분실증명서를 가지고 보상청구(화물 운송협약에 의해 보상을 받는다)
- ④ 호텔 Reception Desk에서 분실시 신고를 하며, 분실물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야 한다.
- ⑤ 결국 가방을 찾지 못하게 되면 호텔에서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이 오게 되는데 이때 분실신고서를 작성 후 받게 된다.
- ⑥ 만약 호텔측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될 시 호텔측으로부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혹시 가방을 찾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일정을 호텔측에 미리 얘기해야 된다.
- ◆ 여행 중 잃어버리면 찾기가 힘들다. 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 만약 보험에 가입해 있고 담보 항목에 휴대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현지 경찰에서 도난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의 지점에 연락해 둔다. 여행에 필요한 간편 물품은 필리핀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고, 귀국 후 보험회사에 손해액을 청구하면 된다. 다만 비용이나 보증액 등은 회사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회사에 문의한다.

#### 5. 귀중품을 분실 했을 경우

- ◆ 출발전 여행자 보험에 꼭 가입하고 귀중품 도난시 현지 경찰서에서 Police Report를 꼭 작성해 와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행사 귀중품은 가능한 소지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소지시 항상 본인 몸에 소지하는 것이 좋다.

#### 6. 비행기가 안뜨네요.

- ◆ 항공사의 파업, 기기 점검/고장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지연(Delay), No operation에는 이렇게 대처한다.
- ① 당일 운항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운항이 안된다고 할 경우 가능한 다른 항공편이 있는

지 항공사와 체크한다.

- ② 다른 항공편으로 좌석이 가능하면, 가능한 일정으로 Endorsement를 항공사로 요청할 수 있다. 이때 Endorse에 드는 비용은 해당 항공사가 지게 된다.
- ③ 당일 운항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얼마나 지연되는지를 체크한 후 목적지로 연락하여 호텔이나 식당, 렌트카, 다른 약속 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④ 지연과 No operation의 경우 기다리는 시간동안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정당한 Claim을 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 다음은 그 일반적인 예이며, 항공사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
  - ◆ 2시간 정도 지연 : 음료수, 식사 등 제공
  - ◆ 당일 운항이 불가능할 경우 : 호텔, 교통편, 식사, 음료수 등 제공
  - ◆ 경우에 따라 상기의 보상 외에 현금이나 당 항공사를 재이용할 수 있는 일정금액의 쿠폰이 제공되기도 한다.
  - ◆ 다른 항공으로 Endorsement 받게 되는 경우도 다른 항공을 이용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에 따라 음료와 식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7. 환자 발생의 경우

- ① 병원 또는 의사를 불러 진료 및 치료를 받도록 한다.
- ② 의사 소견서 및 치료비 영수증을 받아 귀국 후 보험 처리할 수 있다. 치료비는 카드로 결제하는 편이 보험처리에 좋다. 기왕증 또는 병력이 있었던 경우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
  - ◆ 보험청구시 준비서류 : 의사 소견서 또는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여권 복사본, 은행통장 사본, 전화번호, 사고내역서, 치료비 명세서 등

## 8.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이렇게

- ① 구급차를 불러서 동승하고 병원으로 이동하여 진찰 및 응급치료를 받는다.
- ② 경찰에 신고 및 한국 재외 공관에 사고사실을 알린 후 협조를 의뢰한다.
- ③ 피해자일 경우 : 상대방에게 사고 경위서를 경찰 입회하에 작성토록한다.
- ④ 치료시 나오는 경비에 대한 영수증 및 진단서를 첨부 및 수령하여 보관한다.

## 9. 도둑 맞았을 때는 이렇게

- ① 절도를 당한 즉시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Police Report를 받는다. 신고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며 절도를 당한 여행객 인원수대로 별도 작성해야 손해를 줄일 가능성이 더 있다.
- ② 본국으로 귀국 후 Police Report를 가지고 보험회사에 신고한다.
- ③ 보험사 제출시 필요서류 : Police Report, 손상품 수리견적서(영수증 포함), 여권사본, 통장사본(본인의 통장이 아닐 경우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서류)
- ④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들 : 현금, 수표, 항공권 등

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주요 연락처

- ◆ 주 필리핀 한국 공관 [대사관]

주소 : 10th Floor, The Pacific Star Bldg., Makati Ave. 1226 Makati City, M.M. Philippines(마닐라내 한국인 집결 거주지인 Makati에 위치)

전화 : (63-2) 811-6139/ 8260/ 8261/ 8262 (영사과 공통)

팩스 : (63-2) 811-6148

E-mail : dipinfom@mofat.go.kr

홈페이지 : <http://www.mofat.go.kr/ph>

[영사과]

**우리 재외국민 보호, 민원처리, 사증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영사과에는 교민담당 영사, 사증발급담당 영사 및 회사 협력담당 영사가 근무한다. 이들 영사들은 자신의 전문분야에 관계없이 모든 영사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어 상호간에 대리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주소 : 18th Floor, The Pacific Star Bldg., Makati Ave., 1226 Makati City, M.M. Philippines

팩스 : (63-2) 811-8258

E-mail : dipinfom@mofat.go.kr

[세부명예총영사관]

\* 세부명예총영사관에서는 여권.공증.비자 등 일반 민원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성명: 아우구스토 고(Augusto Go)

주소: Mezzanine Floor, UC-ICTC Bldg., Gov. Cuenco Avenue Banilad, Cebu City

Tel/Fax : (63-32) 231-6345

◆ 주요업무 및 연락처

1. 공관 업무시간, 공휴일 및 공관내 업무분장

가. 근무시간(월-금요일)

1) 근무시간 :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30분

2) 민원서류 접수 및 교부시간

- 여권, 공증 : 접수/교부 (오전) 9시 ~ 12시 / (오후) 1시 30분 ~ 4시

- 비자 : 접수 (오전) 9시~11시 / 교부 (오후) 2시~4시

3) 시차 : -1 (필리핀 시간이 한국시간 보다 1시간 늦음)

나. 근무시간외 비상연락(당직) 전화

◆ 근무시간이후 또는 휴일에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사건.사고 발생시

- 1) 필리핀에서 전화시 : (휴대폰) 0917-817-5703
- 2) 외국에서 전화시 : 63-917-817-5703

\*\* 위 긴급시 이용하는 당직전화가 연결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0917-884-5420로 연락

\*\* 일반민원 문의는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 근무시간(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  
까지)에는 영사관 전화 (811-8260~62)를 하시거나 전자민원을 이용

◆ 담당업무 및 직원명단

- 1) 여권(여행자증명서 포함), 공증, 병역, 호적, 한인회, 한인단체(재외국민등록 포함), 한글학  
교 : 문광식 영사(내선번호 : 305)
- 2) 비자, 출입국, 불법체류 : 박규범 영사(내선번호 : 306), 안규석 영사(내선번호 : 200)
- 3) 사건.사고(형사사건), 주재국경찰청과 업무협조 : 서대용 영사(내선번호 : 308), 박기태 영  
사(내선번호 : 307)
- 4) 사건.사고, 수감자 관리, 행려병자 지원, Legal Assistance : 안민식 영사(내선번호: 309)

◆ 대사관휴무일

8.15 광복절

8.21(화) Ninoy Aquino Day

8.27(월) National Heroes' Day

10. 3 개천절

10.12(금) Eid ul-fitr-Ramadan

11.1(목) All Saints Day

11.2(금) Special Non-working day

11.30(금) Bonifacio Day

다. 체류지 주소

◆ Enigmata Treehouse

주소 : Maubog, Balbagon, Mambajao, Camiguin Island

전화 : 088-3870273

휴대 전화 : 09182304184

Email : [enigmatatreehouse@yahoo.com](mailto:enigmatatreehouse@yahoo.com)

## 의미있는 우리의 여행을 위한 글 하나

### 책임 여행

지난해 앙코르와트를 다녀온 김정선씨(32)는 여행을 돌이킬 때마다 짝짝하다. 수백년된 인류의 문화재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고, 아이들에게 돈을 쥐어주고 기념사진을 찍던 관광객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다. 고무 대야를 타고 다니며 구걸하던 톤레삽 호수 수상마을의 어린이들도 마음에 걸린다. 관광객 때문에 여행지가 망가질까봐 걱정스럽다. 김씨 같은 여행자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여행업계에서는 '책임여행(Responsible Tourism)'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여행을 통해 여행국가의 경제·자연·문화를 보존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국적 체인 레스토랑·리조트 대신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식당과 숙소를 이용하고 현지인 가이드를 고용할 것을 권한다. 여행이 여행 국가에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것. 책임여행은 여행업계에서의 '윤리적 소비'다.



캄보디아의 톤레삽 호수에서 한 어린이가 관광객들에게 음료수를 팔고 있다. '책임여행'은 이렇게 영벌이를 위해 거리로 내몰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노동상품을 구매하지 않는다. 캄보디아/박재찬기자

### 현지의, 현지에 의한, 현지를 위한 여행

영국의 리스판서블 트래블 닷컴([www.responsibletravel.com](http://www.responsibletravel.com))은 2001년 세계 최초로 설립된 책임여행 전문 여행사다. '책임있는 여행자'와 현지 여행사를 연결해주는 한편 새로운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앙코르와트 청소여행, 베트남 요리 배우기 여행, 프랑스 요가 여행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히말라야 트레킹의 경우 '가장 싸게 짐꾼을 구할 수 있는 여행사' 대신 '포터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여행사'를 소개하는 식이다. 똑같은 리조트 여행도 대형 체인 리조트 대신 현지 주민이 운영하는 작고 친환경적인 리조트를 권장한다. 이 업체의 매출은 매년 4배씩 뛰고 있다.

책임여행은 2000년대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리스판서블트래블닷컴 외에도 슬로 트래블([www.slowtravel.com](http://www.slowtravel.com)), 그린 글로브([www.greenglobe.org](http://www.greenglobe.org)), 에티칼 에스케이프([www.ethicalescape.co.uk](http://www.ethicalescape.co.uk)) 등의 여행사 및 여행 관련 단체들이 책임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유럽의 대표적인 대형 여행사인 토마스 쿡, 마이 트래블 등은 현지 고용을 우선해 여행이 현지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책임여행 정책'을 광고하고 있다. 힐튼·페어몬트 등 대형 호텔 체인에서는 1회용품 안 쓰기, 탁월 재활용 하기 등의 친환경 정책을 편 지 오래다. 미국에서도 윤리적 여행자([www.ethicaltraveler.org](http://www.ethicaltraveler.org))라는 시민단체가 활동 중이다.

### 비행기를 타지 않는 여행

최근 책임여행계에서는 '비행기 여행하지 않기'가 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비행기가

배출하는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는 것. 지난 4월말 주한 영국대사관이 주관한 한·영 환경운동가 세미나에서는 영국 환경운동가들이 굳이 비행기를 탈 이유가 없다고 통보해와 긴급히 화상회의로 대체되기도 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내가 배출한 만큼의 탄소를 없애기 위해 나무 심기 등 탄소 줄이기 운동을 벌이는 단체에 기부하자는 프로그램도 생겼다. 클라이미트 케어([www.climatecare.org/responsibletravel/calculators](http://www.climatecare.org/responsibletravel/calculators))에서는 비행거리만큼 배출한 탄소의 양을 계산해준다. 서울~방콕 1인 왕복의 경우 810kg의 탄소가 배출되고, 이를 없애려면 6파운드가 필요하다.

유럽 대형 여행사 크리스털 홀리데이는 최근 항공권을 구입할 때 비행거리에 따른 탄소 배출량만큼의 기부금을 내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리스판서블트래블닷컴은 '난 비행기 안 탈거야(I don't want to fly)' 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랑스 남부 자전거 투어, 스코틀랜드 카약 여행 등을 소개하고 있다.

### 군부가 지배하는 미얀마 여행 반대

책임여행자들 사이에서는 군부독재가 지배하는 미얀마는 여행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관광객이 쓰는 돈이 군부독재 유지에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전 세계적으로 고립된 미얀마 군부에 관광객은 유일하게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대상이다.

여행을 하더라도 군부가 운영하는 국적기나 국영업소 대신 비싸고 불편하더라도 외국 항공사와 사설업소를 이용한다. 배낭여행 전문여행사 엔투어 김신철 팀장은 "여행자 대부분이 군부가 운영하는 국영버스 대신 낡고 비싼 사설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버스포를 팔 때에도 '국영버스냐 사설버스냐' 를 물어볼 정도" 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무분별한 대형 리조트 건설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영국의 여행전문 시민단체 투어리즘 컨선(Tourism Concern)은 2005년 바하마 비미니 섬의 힐튼 리조트 건설 반대 시위를 벌였다. 골프장과 카지노가 포함된 새 리조트 건설이 자연을 훼손하고 지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지난해 쓰나미가 휩쓸고 간 푸켓에 대형 리조트들이 잇달아 들어서는데 대해 "수십만명의 이재민이 집 없이 떠돌고 있는 마당에 리조트 건설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 는 의견을 펴기도 했다.

### 한국인 63% '책임여행에 돈 더 쓸 수 있다'

한해 출국자가 1200만명에 이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책임여행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상태다. 국내 최대 여행사인 하나투어의 경우에도 쓰나미 피해 지역을 여행할 때 관광객들로부터 못 입는 옷을 기부받아 전달하는 정도다. 그러나 태평양지역관광협회(PATA)가 지난 2월 한국·인도·중국·독일 등 10개국 5050명을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한국인 응답자의 63%가 '현지의 문화와 환경을 보존하는 책임있는 여행에 여행경비의 25%까지 더 쓸 수 있다' 고 응답했다. 기존 여행방식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여행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한국관광공사 관광개발건설팀 박태원 연구위원은 "해외 여행이 대중화되면서 기존 여행 방식에 식상한 사람들이 돈을 좀더 주더라도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새로운 체험을 해 보고



싫어한다" 고 지적했다. 그는 "책임여행이 단지 현지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관광객에게도 즐거움을 줄 수 있다" 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국내 여행 문화가 성숙하지 못했음을 감안해 책임여행이 시기 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교포들이 운영하는 식당, 숙박업소, 가게 등을 이용해 교포를 돕자는 것이 한국인들의 정서" 라며 "현지인을 배려하는 책임여행은 아직까지 시기 상조" 라고 지적했다.

### 책임여행, 이렇게 즐겨라!

- ① 현지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소비한다: 대형 체인 리조트나 식당 대신 현지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소, 식당, 여행사를 이용한다.
- ② 어린이에게 사탕이나 선물, 돈을 주지 않는다: 정말 돕고 싶다면 현지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구호단체를 통하라.
- ③ 간단한 현지어를 미리 배워둔다: 서툰 현지어로 말하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마디가 큰 차이를 가져온다
- ④ 현지 물가를 존중하라: 그들보다 100배 많이 버는 당신이 좀더 비싼 외국인용 입장료에 분노할 필요는 없다.
- ⑤ 흥정은 적당히 하라: 바가지를 씌우는 물건은 꼭꼭 적당한 비용은 지불하라.
- ⑥ 인물 사진은 물어보고 찍자: 안된다고 할 경우엔 포기하라. 사진을 보내주기로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켜라.
- ⑦ 멸종 위기종으로 만든 제품은 피한다: 거북이알 수프, 악어 핸드백은 사지 말자.
- ⑧ 문화적 차이와 금기를 미리 배우고 존중하라: 태국에서는 아무리 귀여워도 아이들의 머리를 두드리면 안된다. 네팔 가정집 안에서는 우산을 펴면 안된다.
- ⑨ 현지 드레스 코드에 맞춘다: 사원에 들어갈 때에는 노출이 심한 옷은 피한다. 현지인들이 어떻게 입는지 살펴보자.
- ⑩ 현지의 정치·사회 현황을 미리 알아두라: 가이드북의 역사·정치란을 미리 읽고 출발하자. 백과사전에서 여행할 국가 항목을 찾아 읽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참고: 윤리적 여행자 [www.ethicaltraveler.org](http://www.ethicaltraveler.org)

지속가능한 여행 [www.sustainabletourism.net](http://www.sustainabletourism.net)

### ▲ 책임여행이란?

관광객은 여행국가의 경제·환경·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개념이다. 특히 관광객의 윤리적 책임에 무게를 둔다. 기존 대규모 패키지 형태의 관광을 지양하고 나온 대안 관광의 하나로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 생태관광(Eco Tourism)과 함께 쓰인다. 이들 대안관광은 1992년 리우회담을 계기로 제시되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 집중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명애 기자 [glaukus@kyunghyang.com](mailto:glaukus@kyunghyang.com)>

출처 :작은 것이 아름답다

9. 필리핀 평화 여행 TIP

## 필리핀 평화 여행 TIP

### 1. 2006년 4학년(03학번) 이 전하는 필리핀 체험 학습 가이드

#### 필리핀에서 살아남기

##### 1. 준비작업

- 1) 개인준비물 : 전자사전, 옷(긴팔, 긴 바지), 코드 변환기, 시러스 카드, 지퍼백, 고추장, 스톱클링 장비 권장, 물놀이 복장
- 2) 전체준비물 : 한복, 단체 선물, **홈스테이 선물**, 공연 준비물(소품, 음악CD, 음향기기)

##### 2. 필리핀 가기 전에 준비할 것

- 1) 방문할 단체에 대한 사전지식 공부
  - 2) 간단한 생활 영어회화 공부
  - 3) 간단한 따갈로그 회화 공부
  - 4) 필리핀 물가 조사
  - 5) 필리핀 문화 조사
  - 6) 자료집 만들기
  - 7) 공연준비(사물놀이, 몸짓, 합창 등)
  - 8) 여권 만들기(유효기간 확인-6개월 이상 유효 기간 있어야 함)
  - 9) 시러스 카드 만들기
  - 10) 수영 배우기(죽기 싫으면)
  - 11) 모기약, 바퀴벌레 퇴치약(신기패) 필수
  - 12) 생활 수칙 구체적으로 확실히 정하기
  - 13) 마닐라 공항 이용료(500페소) 준비
  - 14) 화물로 붙이는 가방에 귀중품 넣지 않기
  - 15) 기내에 액체용품 들고 타지 않기
  - 16) 채식주의 기내식 원할시 24시간 전 미리 연락하기
  - 17) 역할 분담 세분화하기
  - 18) 영상 촬영을 위한 캠코더, 테이프 충분히 준비
  - 19) 만 14세 미만의 학생은 서류와 약 60달러 준비
  - 20)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짐 최대한 줄이기
  - 21) 환전할 때는 페소보다 달러가 유리함
  - 22) 필리핀 왕복 항공권은 1년 오픈으로 끊고, 민다나오 항공권은 빨리 끊을수록 할인 받을 수 있다.
  - 24) 입을 책 몇 권 가져가기
  - 25) 3개월 동안 미용실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가기 전 준비하고 가기
- ##### 3. 마닐라
- 1) 밤늦게 돌아다니지 않기(필리핀은 총기소지 가능)
  - 2) **땡기열 모기 조심(밤 6시 이후 무릎 아래 조심-긴 옷 필요)**

- 3) 필리핀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기(필리핀 사람들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다가 극단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
- 4) NGO 단체 배려하기(에어컨 사용하지 않기)
- 5) 프로그램에 적극적 참여(사전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것이 이루어 져야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함)
- 6) 단체 방문 후 자세한 기록 필수
- 7) 힘들어도 영어로 말하도록 노력하기
- 8) 역할 분담 시 자료 수집 역할 포함하기
- 9) 영상 촬영 절대 필요
- 10) 동전 지갑과 잔돈 필요
- 11) 택시 이용 시 미터기 확인

#### 4. 다르마리냐스

- 1) **SM 자제 필요(민다나오에서 살 것이 아주 많음)**
- 2) **용돈 관리(SM가는 길에 귀중품 조심)**
- 3) 여행지 사전에 알아보고 가기
- 4) 바닷가 안전사고 주의
- 5) English Movie 자주 보되, 한국 드라마 자제할 것
- 6) 필리핀 가기 전 영어 공부는 필수. 영어를 해야 밥을 먹는다.
- 7) 전기 아껴 쓰기. (에어컨 많이 사용 할 경우 전기세, 냉방병 조심)
- 8) 태풍 대비해서 물 아껴 쓰기(태풍으로 인해 물이 절수되면 빗물 받아쓰기)
- 9) 태풍 대비해서 실리콘 가져가기
- 10) 신기패 필요
- 11) 아폐한테 의존하지 않고 집 청소 스스로 하기
- 12) 집 열쇠 관리 잘하기
- 13) 밤늦게 돌아다니지 않기

#### 5. 민다나오

- 1) 공항이 좋지 않으니 빨리 가서 기다릴 것
- 2) **마닐라에 비해 추울 수 있으니 긴 옷 준비(특히 와와이 부족)**
- 3) **이동 중 짐이 많으면 힘들니 최대한 짐을 줄일 것**
- 4) 기념품 살만한 것이 많으니 **용돈을 아껴 쓰는 것이 좋음**
- 5)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일정이 빽빽할 경우)
- 6) 과일을 한국으로 가져오고 싶을 경우, 씨와 껍질을 발라낸 후 가져와야 함
- 7) 마닐라에 비해 과일이 싸니 과일을 많이 먹어보고 올 것
- 8) 장시간 이동할 경우 무조건 30인용 이상 버스 대여
- 9) 멋있는 곳이 많으니 사진 많이 찍기
- 10) 캠프 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영어 공부 필요)
- 11) 우리 나라 전통의상 준비
- 12) 우리 나라 문화를 알리기 위한 공연 준비 많이. 선물도 많이 준비.

## 2.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들

필리핀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옷들도 정말 많다고 5학년 학생들에 말인데...  
그건 가서 맘에 드는거 아무거나 골라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망고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두리안도 그렇게 맛있다고 한다.( 태쌤 인터뷰중)  
국내에 망고를 가지고 들어오려면 아무래도 씨를 말린 망고가 좋을 듯싶다.  
왜냐하면 그게....문익점선생이 목화씨를 들어올 때 사회적 파장이 컸을걸?? 모르겠다.  
두리안 사탕을 사서 기숙사의 배고프고 굶주린 아이들에게 적선해주면 아마도 감사해 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필수품으로 사올 것이 100페소짜리 편안한 바지다.  
그거 2개정도 사오면 아마 후회는 없을 듯싶다. 잠옷도 되고 노작할 때도 되고...  
그러나 필리핀 사람체형이라서 그런지 우리가 입기에는 조금 부담될 정도로 작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러 쇼핑몰에서 맛있는 과자를 섭취한 다음에는 꼭 이빨을 닦자.  
필리핀에서 보다 나중에 한국 치과에서 돈 더 많이 깨지는 수가 있으니까.

길거리 쇼핑에서 백미는 뭐니뭐니해도 먹을거리가 아닐까??  
가장 추천하고 싶은 음식은 한국에서 먹을 수 없는 것!!  
잉태한 달걀 속에 들어있는 병아리 고기가 아닐까 싶다. 동근옴하~의 말로는 자기가 먹었다고 하는데....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색다른 경험을 원하는 여행자라면 꼭 한번 먹어 봤으면 좋을 것 같다. 또!! 빈민가에서 파는 쥐 꼬챙이 구이 먹어보고 싶다.  
내가 어젯밤에 꿈에서 그 고기를 먹어봤는데 마치 샹스핀의 맛과 흡사했다.  
샹스핀은 아직 못 먹어봤지만...

### 간단한 쇼핑TIP

다쓰마에서 돈을 많이 쓰지마!!(특히 SM 물) 이상이다.

#### 두꺼비 지갑

쇼핑몰 중에는 더러 두꺼비껍질 지갑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두꺼비껍질 지갑은 고풍스러운 가죽이 우리의 오감을 매료시킨다. 그리고 맘에 안 든다.  
돈을 쓰기 싫은 짠돌이한테 추천해주고 싶다. 그런 가죽지갑은 돈이 잘 안 빠진다는 설이 있거덩?? 그러니깐 주위 분들에게 추천해주세요~

#### 먹을 것을 즐겨라!!

다쓰마에는 먹을 것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 릭스형의 말로는 버거머신이란 곳에서 단돈 2000원이면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다고 한다. 지갑이 굶주린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꿈같은 소식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길거리에서 파는 맛있는 꼬치. 단돈 0.2 페소라고 한다. 귀가 솔깃해지는구만!!

거기 가서 필리핀 산외의 것은 우리나라의 값과 똑같거나 더 비싸니까 건드리지마.

### 팔라만시

물에 타먹는 무언가.....시큼한맛?? 식초를 타 먹는게 낄것인가.. 아니라고 한다.. 단맛도 난다고 한다. 아무튼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무조건 사드세요.

### 그리니치

대세다. 맛있다.

### 듀릅??두릅?두릅?

맛있다.직접가봐라~이름도 가서 정확히 알아서 알려주세요.

## 2. 2007년 4학년(04학번) 이 전하는 필리핀 체험 학습 가이드 2.

# 5학년이 말한다 !

### 꼭 먹어야 할 것들

Red Ribbon(케이크 전문점)의 초콜롤, 던킨 도넛, 각종 과자, 초콜릿, 망고망고망고, 생과일쉐이크, **뚜론뚜론뚜론뚜론뚜론**, 카오테큐(트리하우스의 로사 엄마가 해주시는 것), 카마테큐, **바나나큐바나나큐**, 판싯 칸톤(엑스트라 스파이시), 시니강, 렌천, 레드홀스, 산미겔, 나초, 와플(와플타임), **브라우니브라우니브라우니**, **마리아피자(네그로스)피자피자마리아피자**, Red Ribbon(케이크 전문점)의 까르보나라, 각 지방마다 다른 바나나튀김, **부코파이부코파이부코파이부코파이**, 구아바파이, 비닐 콜라, 판싯, **발룻발룻발룻**, 과자 다 사는데 각자 나눠먹는 것 그런법이 있었다 망고 먹고 싶은 것 치즈과자 그리고 한 14 식 먹었다 그리고 포도주스 사는데 법 초콜렛 짬도 먹어봤다 스팅글스도 사서 먹었고 피자과자도 그리고 떡꼬치도 먹고 싶었다, 그린망고쉐이크, 과자말고 **과일**, Scoopery의 **우베아이스크림우베아이스크림우베아이스크림**, Yellow cap의 피자, 할로할로, 바로 딱 바나나, 수만, 와와이 마을에서 타주는 커피나 코코아, Jolibee의 스파게티, 코코넛에 빨대꽂아 먹는 물, KFC 감자튀김, 현지음식, 1페소짜리 초콜렛. **이상해 보여도 가리지 말고 다 먹어보자.**

### 꼭 가봐야 할 곳들

SM mall - 우리와는 다른 쇼핑물을 체험합니다 !, 민도르의 기념품판매점, 스노쿨링, 야생원숭이랑 돌고래보러 가세요, 혼자서 여행하는 것, 온천, 바다, **우카이우카이**

### 그 외 진심어린 한마디들

- 많이 먹고와, 근데 많이 먹고 와도 먹고싶어진다, 남는건 먹는게 반이더라 품
- 돈을 두둑하게 500페소 정도씩 갖고 다니고, 강도가 돈달라 그러면 그냥 주고, 쇼핑 간단히 하고, 우리나라에 없는 것들로만 사봐용, 쌤몰래 많은 것들 해보기
- 외우면 좋아 ! kumusta po(안녕하세요) ako ay si Wendy(저는 웬디입니다.)
- 선물사와

- 물가 반년만에 20% 증가래.
- 라뷰가이스~♡
- 건장한 남성분들은 게이를 조심하며 여성분들에게는 가끔 헌팅이오니 조심, 물가가 싸다고 많이 사지 말자 어느 순간 지갑이 가벼워진다. 환전하러 달러를 갖고 가는데 페소와 달러를 구분해놓는다. 가끔 20페소를 20달러로 내는 경우도.... 필리핀 과자는 우리나라보다 유해물질이 많으니 많이 먹지는 말자.
- 필리핀은 덥지만 와와이마을 같은 곳은 높은 지대라서 밤에는 정말정말정말 추워, 그러니까 따뜻한 옷 한 벌이라도 가져가면 좋을 거야, 그리고 집에서 남녀 같이 살 때는 같이 영화도보고 과자 먹고 바나나, 코코넛, 파인애플 등등 같이 사먹고,,, 암튼 잘 다녀오고 모기 꼭 조심해.
- 밤길조심
- 길거리 애들한테 돈 주지마, 어차피 부모들이 다 뺏어가거든. 금 악세사리 가져가지마, 그냥 후다닥 뜯어간다 귀걸이든 뭐든. SM에서 옷 앵간하면 사지 말어, 솔직히 후져. 바다에서 즐 신나게 놀고 와, 후회한다.
- 돈 많이 갖고 가!
- 2달 동안 좋고 유익한 여행이 됐으면 해 ~
- 부모님께 연락 자주 드리고, 아프지 말고, 여러 면에서 많이 조심해야하니깐 조심하고 또 조심해,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와. 보고 싶을거야. 사랑해. 짱짱보고싶을 거야. 김뉴, 지라, 배야 사랑해.

## 10. 함께 부르는 노래

### 1. 평화가 무엇이나

문정현, 조약골 작사

조약골 작곡

F                    Dm            Gm            C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가 원직 복직하는 것이 평화  
F                    Dm            Gm            C  
두꺼비 맹공이 도롱뇽이 서식처 잃지 않는 것이 평화  
F                    Dm            Gm            C  
가고 싶은 곳을 장애인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평화  
F                    Dm                    Gm            C  
이 땅을 일궈온 농민들이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 것이 평화  
F                    Dm            Gm            C  
성매매 성폭력 성차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  
F                    Dm            Gm            C                    F  
군대와 전쟁이 없는 세상 신나게 노래 부르는 것이      평화

F                    Dm            Gm            C  
배고픔이 없는 세상 서러움이 없는 세상  
F                    Dm            Gm C            F  
쫓겨나지 않는 세상 균림하지 않는 세상

Bbm                    F            Bbm            F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가 원직 복직하는 것이 평화  
Bbm                    F            Bbm            F  
두꺼비 맹공이 도롱뇽이 서식처 잃지 않는 것이 평화  
Bbm                    F            Bbm            F  
가고 싶은 곳을 장애인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평화  
Bbm                    F            Bbm            F  
이 땅을 일궈온 농민들이 빼앗기지 않는 것이 평화  
Bbm                    F            Bbm            F  
성매매 성폭력 성차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  
Bbm                    F            Bb    Am    Gm C            F  
군대와 전쟁이 없는 세상 신나게 노래 부르는 것이 평화

간주

F                    Dm            Gm            C  
배고픔이 없는 세상 서러움이 없는 세상

F Dm Gm C F  
 쫓겨나지 않는 세상 군림하지 않는 세상  
 F Dm Gm C  
 빼앗긴 자 힘없는 자 마주보고 손을 잡자  
 F Dm Gm C F  
 새세상이 다가온다. 노래하며 춤을 추자

2. 꿈찾기

꿈 찾 기

손 호준 글, 곡

The musical score is written in a 4/4 time signature. It consists of six staves of music.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the notes, and guitar chords are indicated above the staff lines. The lyrics are:
   
희미 하 게 지 워 져 갔 지 지 어 날 날 들 의
   
나 의 고 어 린 작 작 Am Em
   
기 억 속 에 묻 혀 사 라 진 내 어 린 꿈 들 그
   
소 중 했 던 꿈 찾 아 이 길 를 떠 나 가 자
   
어 저 먼 그 꿈 들 도 기 억 저 편 어 디 선 가 날
   
찾 아 길 을 떠 났 겠 지 그 조 그 망 던 나 를



Am Em F G C

하지만 찾을 수 있어 그 작고 소중한 꿈 언

F G Em Am F G

제나 내 기억 속에서 살며시 숨쉬고 있어 꿈을

C G Am Am<sup>7</sup>

찾아 떠나 는 설레임 속 에 휘파람을 불며 떠나 가 보 자

F Dm G

그어 디선 가 나를 기다리고있을 다 시

C G Am Am<sup>7</sup>

만나 는 날 언 굳게 손 잡 고 다른 꿈들함 깨찾아 가 야 지

F G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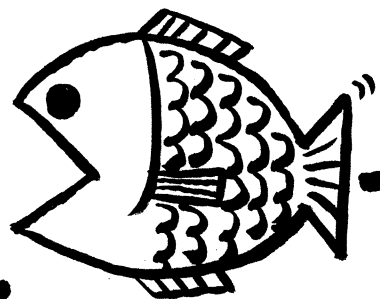
그어 디선 가 나 를 기다리고있을

11. 함께 가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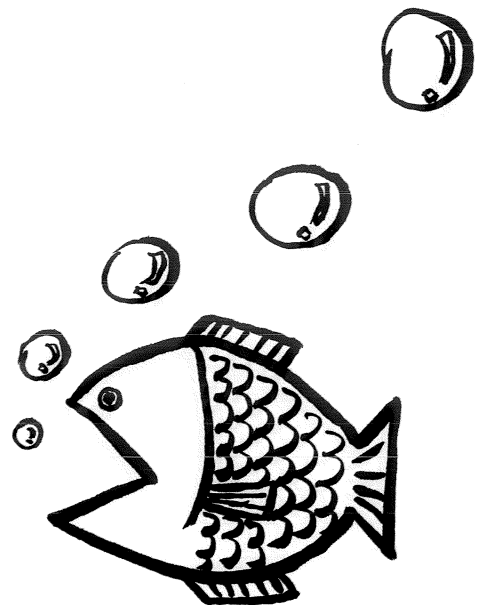
2008 필리핀 체험학습 참가자 정보

	이름	성별 (sex)	영문 이름 (Surnames / Given names)	여권 번호 (Passport number)
				주민등록번호
1	강주원	M	KANG / JUWON	GN4009018 920618-1916610
2	김찬호	M	KIM / CHANHO	JR3689346 930201-1070016
3	백동훈	M	BAEK / DONG HOON	CB0627230 911207-1079912
4	이범진	M	LEE / BUMJIN	JN0682023 920504-1552648
5	이원범	M	LEE / WONBEOM	UL4002650 920804-1675811
6	장현기	M	JANG / HYEON GI	GG0349013 920329-1173726
7	전동녕	M	JEON / DONGNYUK	GK1929851 910425-1079529
8	최민욱	M	CHOI / MINUK	JR3330338 920422-1037213
9	최용현	M	CHOI / YONG HEON	BS2346176 920615-1829810
10	김유진	F	KIM / YOUJIN	KN0773899 920608-2710717
11	배아현	F	BAE / AHYUN	GN1069183 920627-2836917
12	안예지	F	AN / YEJI	TM0986525 920528-2009917
13	이다빈	F	LEE / DABEEN	IC4007449 920914-2152111
14	이예영	F	LEE / YEYEONG	KN4008779 921029-2041819
15	전수빈	F	JEON / SU BIN	YP4008842 921128-2070519
16	김윤하	M	KIM / YOON HA	CB 0683926 730403-1716431
17	오필선	M	OH / PIL SUN	JR1358137 700629-1046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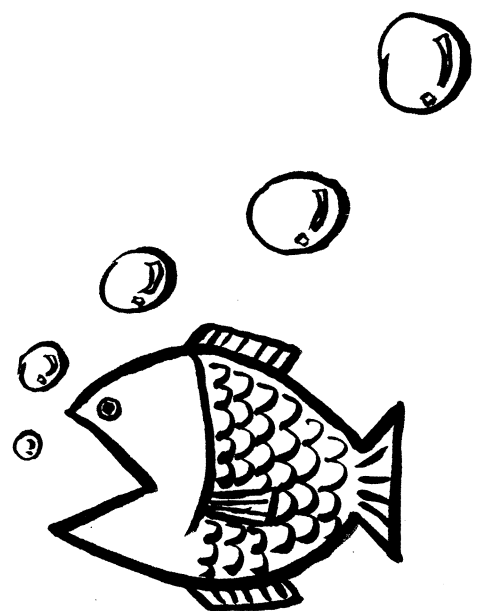
#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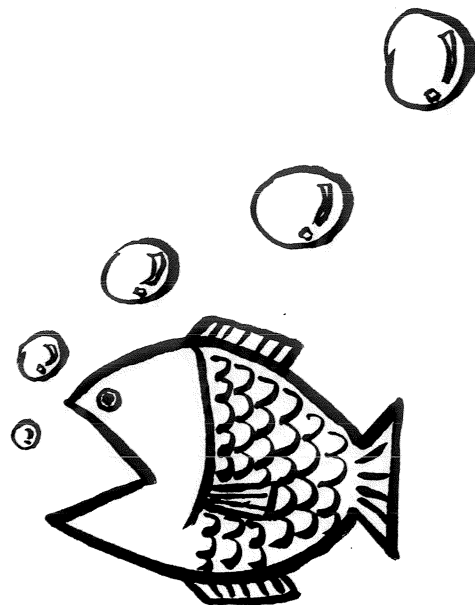
#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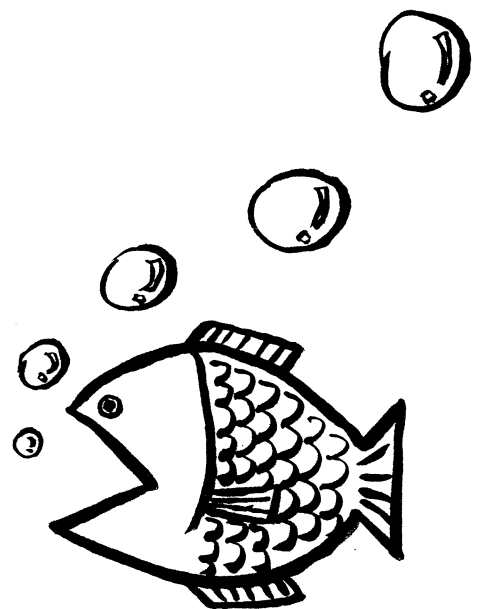
# MEMO



# MEMO



# MEMO



# MEMO

